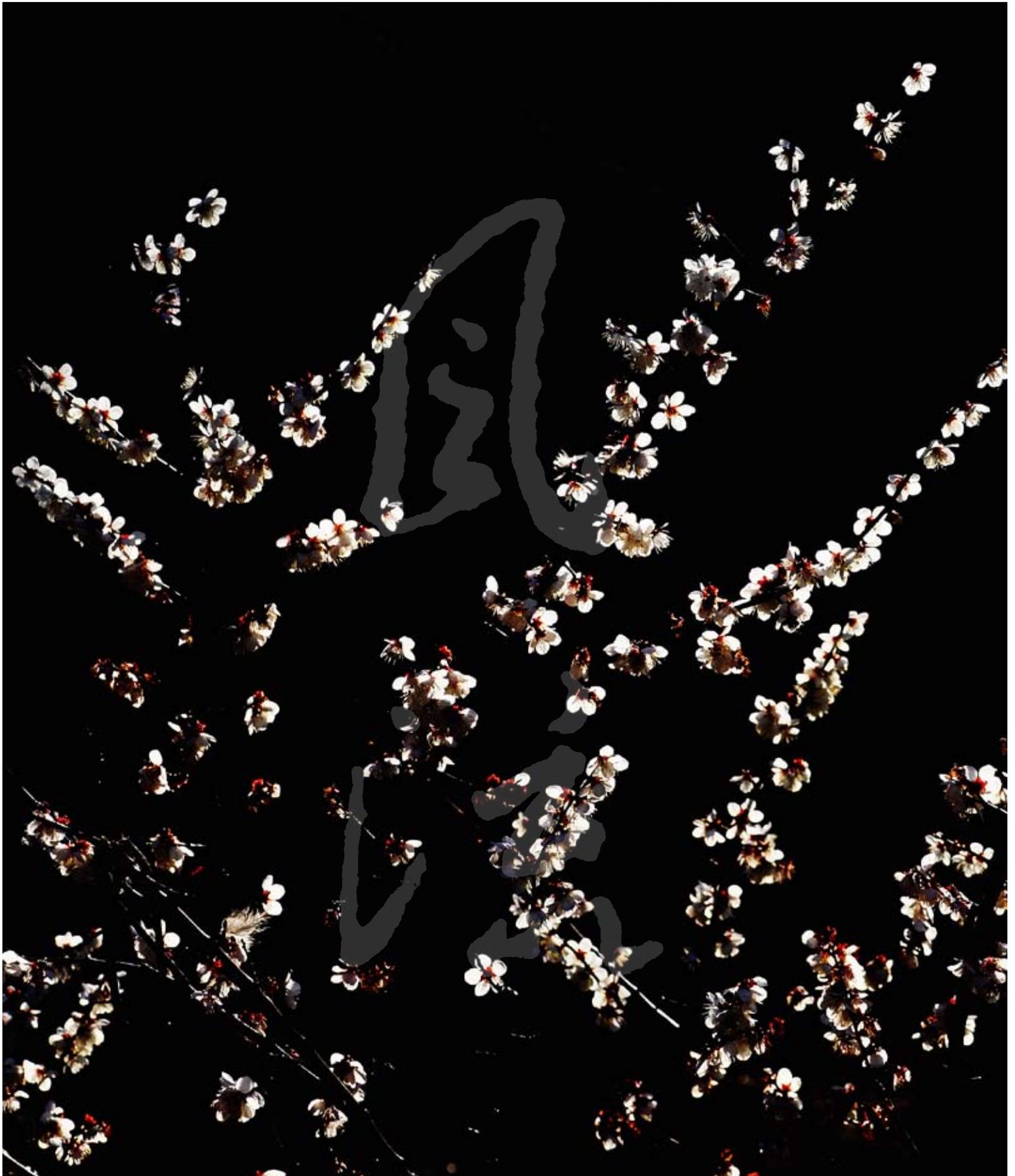


경기·문화·나루.

bimonthly culture magazine culture•naru

2010 03-04

- 풍류, 우주의 이치로 즐기다 •
- 미술가 이상남 •
- 봄꽃이 아름다운 경기도 •



경기도미술관
2009 신소장품전

Oh! Masterpieces

2! 2! 2!

경기도 미술관

2009 신소장품전

Oh! Masterpieces

Gyeonggi MoMA
2009 New Acquisitions
Collections

2010. 1. 31 >> 4. 18

1, 2F Exhibition Hall



김홍도 | 모정풍류 | 100.6x34.8 cm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CONTENTS

- 02 **문화의창** 문학 위에 찍힌 역사의 발자국을 따라가 보다
- 06 **특집** 풍류, 우주의 이치로 즐기다
- 08 선인들의 봄맞이_유상곡수연과 화전놀이
- 12 삶 자체가 풍류인 경기도무형문화재 임정란
- 16 자연을 벗하며 마시다
- 22 문화상품으로 누리는 현대적 풍류
- 24 **스페셜인터뷰** 미술가 이상남
- 30 **유지엄투어** 수원박물관
- 34 **경기, 근대의 풍경을 찾아** 임진각 자유의 다리
- 36 **문화체험** 도자 만들기
- 40 **그곳이 아름다운 이유** 경기도의 봄꽃
- 46 **전통을 잇는다** 자수장 신상순
- 50 **마을산책** 안성 천변마을의 옛 정취
- 54 **기억을 호출하다** 김경의 리스본
- 56 **예술사용설명서** 백남준
- 60 **문화+기업** 신세계 희망 장난감 도서관
- 62 **해외통신원 리포트** 일본과 스페인의 동네 도서관
- 64 **눈길, 마음길** 김수강의 보자기
- 66 **문화소식** Review / Museum · Play · Festival / Calendar
- 72 **편집위원칼럼** 열매만 거두지 말고 떡잎부터 돌보자

우리가 치른 지난 100년의 수업료 문학 위에 찍힌 역사의 발자국을 따라가 보다

올해는 경술국치 100주년, 한국전쟁 60주년, 사월혁명 50주년,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런가 하면 노동자의 권리를 외치며 전태일이 산화한 지 40주년,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은 만나 공동선언을 발표한 지 10주년 되는 해이다.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가늠하는 데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중대한 사건들이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이 사건들 사이에는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 우리나라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전락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저항했는지를 탐구하는 것은 역사학자에게나 문학자에게 최대의 과제이다.

글 엄무웅, 문학평론가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유럽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열도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이웃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유럽의 근대문명이 아주 늦게 도착했다. 임진왜란에 참전한 일본군 장수 가운데 천주교도가 있었다거나, 병자호란 때 청나라로 끌려간 소현세자가 북경에서 예수회 신부와 사귀고 서양 문물을 접했다는 일화는 우리가 이웃 나라들보다 외부 세계에 더 단혀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총칼과 상품을 앞세운 서양 세력의 진출에 대해 심각한 위기감을 느낀 것은 동아시아 세 나라가 크게 다를 바 없었다. 특히 천하의 중심이라고 자처하던 중국이 아편전쟁에 패배한 사건은 모든 아시아인에게 경천동지의 충격으로 다가왔다. 따라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시대의 절박한 화두로 떠오른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돌이켜보면 메이지유신(1867)을 통해 근대적 개혁에 성공한 일본은 강대국의 하나로 성장했고, 자기 혁신에 실패한 봉건 왕국 조선은 결국 남의 나라 식민지로 전락하는 치욕을 당했다. 그것이 바로 100년 전의 경술국치이다.

민족의 비극조차 원경으로 다룰 수밖에 없었다

부끄러운 역사에서 벗어나는 길은 부끄러움의 실체를 똑바로 바라보고 제대로 반성하는 데서 열리기 시작한다. 그런 면에서 한국에 유난히 역사소설이 많은 것은 수난과 고통으로 점철된 우리 근·현대사를 문학적으로 끊임없이 되새기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는 민족의 비극을 정면에서 다루는 작품은 쓰일 수 없었다. 식민지 체제의 본질을 건드리지 않고서는 당대의 현실을 온전하게 묘사하기 어려웠고, 썼다 하더라도 가혹한 검열로 인해 발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약조건에도 불구하고 문학은 현실을 증언하고 체제에 저항하는 본연의 역할을 외면하지 않았다. 가령 염상섭은 비교적 보수적인 의식을 가진 작가였지만, 그의 장편소설 <삼대>(1930)는 조·부·손으로 이어지는 가족사적 변천 과정을 매개로 개화기부터 식민지 초기에 이르는 현실의 변화를 깊이 있게 파헤친 바 있다. 이 작품은 경술국치 자체를 다루지는 않았다. 하지만 치욕을

원경으로 암시하는 것만으로도 문학은 제 몫을 다하는 것이다.

시대의 역사는 개인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는가

공교롭게도 올해는 경술국치 100주년이 되는 해이고 한국전쟁 60주년, 사월혁명 50주년,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런가 하면 노동자의 권리를 외치며 전태일이 산화한 지 40주년,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이 만나 공동선언을 발표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가늠하는 데 있어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중대한 사건들이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이 사건들 사이에는 긴밀한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봉건 체제의 내적 모순과 외세의 침략을 극복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근대화를 이룩하지 못했기에 남의 식민지로 떨어진 것이며, 식민지로부터의 해방을 자주적인 역량으로 달성하지 못했기에 분단과 전쟁의 고난을 겪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전락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저항했는지를 탐구하는 것은 역사학자에게나 문학자에게 최대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다룬 허다한 문학 작품 중에서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높은 예술성에 이른 것으로는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를 꼽을 수 있다. 1969년부터 1994년까지 26년에 걸쳐 집필된 이 초유의 대작에서 작가는 동학농민전쟁이 끝난 직후인 대한제국 성립기부터 한일합방과 일제강점기를 거쳐 태평양전쟁과 일제 패망에 이르는 역사를 거대한 서사시적 화폭 안에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역사의 문학화에 성공하고 있지만, 단순한 역사소설은 아니다. 물론 이 소설에서 동학농민전쟁·경술국치·삼일운동·만주사변·중일전쟁 같은 역사적 사건들은 작품의 흐름에 긴밀히 조응하는 불가결의 배경이 된다. 그러나 이 소설이 정작 다루고자 한 것은 역사 자체가 아니라 그 역사가 서로 다른 개성을 지닌 수많은 개인들의 운명에 어떻게 개입하는가 하는 것이다. 애절한 사랑과 비극적인 파멸, 불굴의 집념과 추악한 배신, 시대착오적인 완고함과 진지한 계몽주의 등 그 시대의 다양한 표정을 이처럼 풍부하게 형상화한 대하소설은 다시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이념의 편차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가로지른 상흔

한국전쟁의 성격과 본질에 관해서는 아직 토론이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각도에서 전쟁을 조명하는 연구서들이 거듭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군과 소련군의 한반도 분할 점령이 남북 분단과 전쟁의 근본 원인이라는 점이다. 김구·김규식·여운형처럼 평화적인 방법으로 남북 합작을 추구한 민족주의자들과 달리, 이승만과 김일성 같은 현실주의자들은 미국과 소련을 각각 등에 업고 단독 정부 수립에 몰두하면서 무력에 의한 통일을 호언했다. 전쟁은 사실상 1950년 이전에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어떻든 전쟁의 참화는 너무 끔찍하고 그 영향은 너무 파괴적이어서, 그로부터 60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도 우리는 전쟁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 쓰인 문학 작품치고 직·간접적으로 한국전쟁과 무관한 것은 없다고 말해도 좋다. 특히 청춘을 전쟁터에서 탕진한 세대들의 생생한 체험적 문학은 1950년대 문단에서 '전후문학'이란 명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선우휘·오상원·송병수·서기원·이호철 등이 그들인데, 그중 등단 55년에 이른 이호철은 노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역으로서 <남녘 사람 북녘 사람>, <이산타령 친족타령> 등의 역작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전쟁을 유소년 시절에 겪은 세대들, 즉 1940년대 출생자들에게 전쟁은 어쩌면 더욱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체험일 수 있다. 어린 나이에 가정이 파괴되고 부친이 실종되어 참담한 곤궁에 내몰리는 것을 보아야 했던 악몽의 경험은 평생 그들의 무의식을 지배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승옥·이문구·현기영·김원일·황석영·조정래·이문열·김성동 등 많은 작가는 문학적 성향이 다르고 이념적 편차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에 부딪혔던 동일한 운명과의 갈등을 각자의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김원일의 <불의 제전>, 조정래의 <태백산맥>, 이문열의 <변경> 등을 통해 전쟁의 상처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목격하며, 그와 동시에 고통의 처참함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진지하고 집요한지에 감동받는다.

100년의 시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4·19로부터 5·18을 거쳐 6·15에 이르는 20세기 후반의 과정은 전반기에 당한 민족사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각성의 발결음이었다고 할 수 있다. 4·19 직후에 발표된 최인훈의 소설 <광장>은 그런 점에서 기념비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 작품은 남북분단과 전쟁이라는 참담한 비극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반공소설의 경직된 냉전논리를 깨끗하게 뛰어넘고 있다. "사월혁명이 열어놓은 자유의 공간이 아니었으면 이런 소설은 쓸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작가의 고백대로, <광장>은 남북 간의 이념적 대결 속에서 파멸하는 한 개인의 비극을 다루면서도 민중의 힘으로 독재정권을 물리치는 데 성공한 그 시대의 밝은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현대사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은 많은 시련과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른바 '조국 근대화'의 압축적 달성을 위해 시민적 자유와 노동자의 인권을 오랫동안 제약을 받았고, 이에 대한 저항도 끊이지 않았다. 조세희의 유명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불평등한 사회구조 속에서 수난을 당하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섬세하고 예리하게 그려낸 연작소설로서, 오늘날에도 '난쏘공'이란 약칭으로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는 많은 희생과 어려움을 치르면서도 끝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 결과 일제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성취했고, 산업화와 민주화의 동시적 달성이라는 신화를 이룩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교훈은 더 자유롭고 인간다운 사회를 향한 꿈을 소홀히 하는 순간 언제든지 새로운 암흑이 닥칠 수 있다는 엄중한 사실이다. ■●

염무웅 1941년 강원도 속초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문리대 독문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1964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문학 평론이 당선됐으며, 1968년부터 계간 <창작과 비평> 편집에 참여해 이후 주간, 발행인을 역임했다. 현재 영남대 명예교수로 있으며, 지은 책으로 <한국문학의 반성>, <민중시대의 문학>, <혼돈의 시대에 구상하는 문학의 논리> 등이 있다.

風流

우주의
이치로
즐기다

옛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복사꽃 살구꽃이 석양 속에 피어 있고,
 푸른 버들 아름다운 풀은 가랑비 속에 푸르도다.
 칼로 재단해 내었는가? 붓으로 그려 내었는가?
 조물주의 신기한 재주가 사물마다 야단스럽다.
 숲 속에 우는 새는 봄기운을 끝내 이기지 못하여
 소리마다 아양을 떠는 모습이로다.
 자연과 내가 한 가지이니, 흥이야 다르겠는가?
 사립문 주변을 걸어 보기도 하고, 정자에도 앉아 보며,
 이리저리 거닐며 나직이 시를 읊조려, 산 속의 하루가 적적한데,
 한가로움 속의 참된 멋을 아는 이 없이 나 혼자로구나.
 여보게 이웃 사람들아, 산수 구경 가자꾸나.
 산책은 오늘 하고, 냇가에서 목욕하는 일은 내일하세.
 아침에는 산에서 나물을 캐고, 저녁에는 고기를 낚아 보세.
 이제 막 익은 술을 두건으로 걸러 놓고,
 꽃나무 가지 꺾어, 잔수를 세면서 술을 먹으리라.
 화창한 봄바람이 문득 불어 푸른 물을 건너오니,
 맑은 향기는 술잔에 떨어지고, 붉은 꽃잎은 옷에 떨어진다.
 술독이 비었으면 나에게 알려라.
 정극인, <상춘곡>

비 갠 뒤 부는 맑은 바람 같은 즐거움

봄날의 풍류로 손뿌을 만한 것이 있다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솔직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일을 들 수 있다.
선비들은 굵어진 물가에서 술잔을 건네며 시를 지었고,
아낙들은 참꽃 따다 꽃지짐을 해 먹으며 생활에서 우러난 심정을 노래했다.
술집과 노래방을 전전하며 노는 것 말고는 달리 놀 줄 모르는
21세기의 한국인을 부끄럽게 만드는,
격조 높은 일상의 풍류다.

글 이지양_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전임연구원 | 사진 이한구



기운은 낮고 바람은 차갑지만 햇살에는 이미 황금빛 봄기운이 스며 있다. 햇살이 한 뼘 더 비스듬히 깊어지고 투명해졌다. 이제 곧 따사한 봄바람이 불고 천지에 물 기운이 가득하다가, 봄비도 보슬보슬 촉촉이 내리리라. 날씨가 그렇게 몇 번 봄의 몸살을 앓고 나면 어느새 산과 들에는 신기루처럼 푸른 기운이 가물가물 돌아올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 곧 '따뜻한 봄별이 아지랑이 경치로 나를 부르고, 드넓은 땅이 아름다운 문장을 내게 빌려주어' 실내보다는 실외에 마음이 이끌리고, 혼자보다는 누군가와 더불어 삶의 기쁨을 노래하고 싶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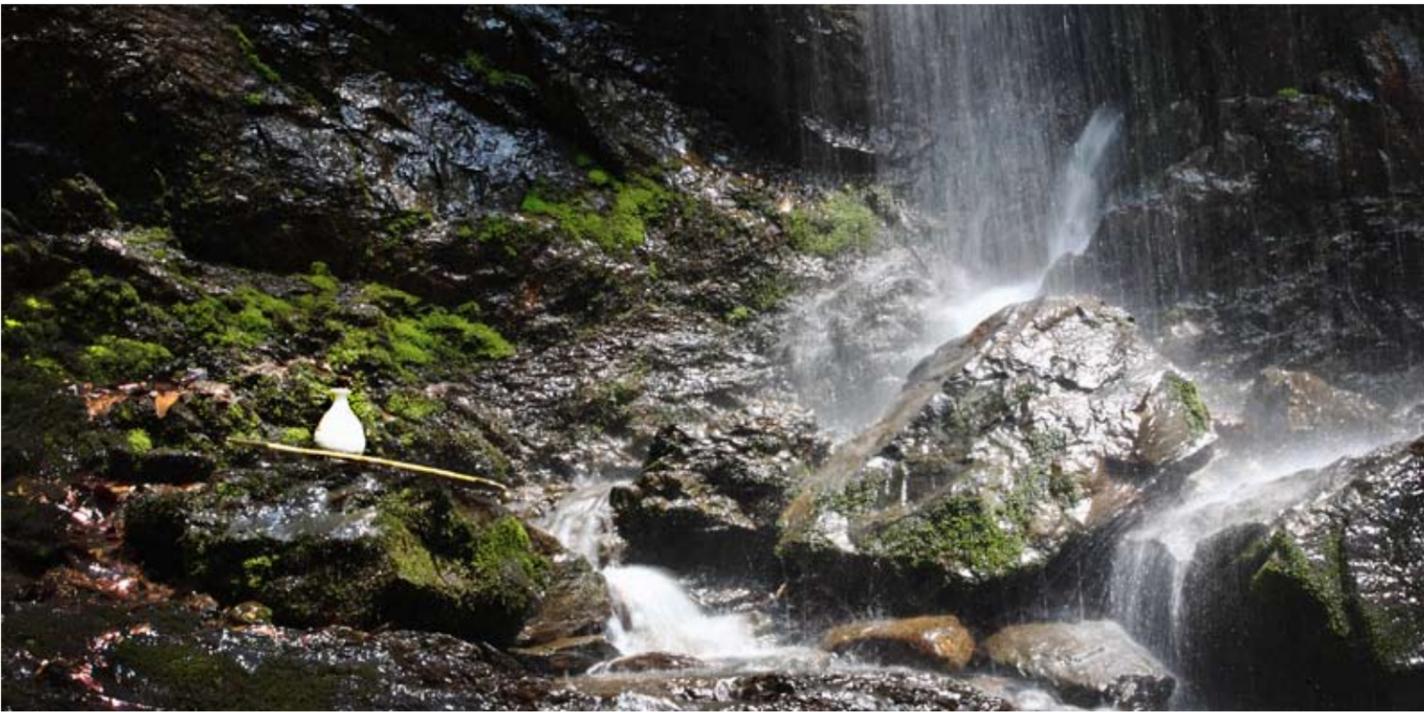
선비의 정신적 지향을 갖는 풍류

선비들은 굵어져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우고 시를 짓는 '유상곡수연(流觴曲水宴)'을 했고, 아낙들은 뒷동산 언덕 어디쯤에서 꽃을 따다가 꽃지짐을 해서 나눠 먹는 '화전놀이'를 했다. 그보다 일상적으로는 답청(踏靑)을 했다. 옛날의 이런 모임은 몸의 욕망을 부추기면서 에너지를 소모시키지 않았다. 형식의 거창함이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금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여, 충분히 마음을 소통함으로써 '서로의 맑고 좋은 기상을 나누는 것으로 기쁨을 삼았다. 멋진 자연 풍광과 약간의 음식, 그리고 자기 내면

의 가장 고급한 에너지를 시로 읊어 서로 선물처럼 나누어 가졌다. 음식이나 술이 고급인데 오가는 말이나 행동이 저질스러우면 얼마나 천하겠는가. 그런 자리에서는 '맑은 즐거움'이 생겨날 수 없고 사람들은 수치심마저 느낄 것이다.

선인의 연회를 보면 놀랄 만큼 격조가 있고 맑다. 기녀의 기준에서도, 음악이나 무용에 능한 기녀보다 시를 짓는 기녀를 높이 친 것은 시가 자기 내면의 정수, 내면의 최고 가치를 명료히 표현해 내기 때문이다. 기녀에게도 그랬을진대 하물며 선비들은 어떠했겠는가.

유상곡수연이라는 운치 있는 연회는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중국 동진(東晉)의 명필 왕희지(王羲之)(307~365)가 절강성 회계현 산음 지방의 난정(蘭亭)에서 음력 3월 3일 41명의 벗과 모여 시를 짓고 노닐었던 일이 가장 유명하지만, 그것이 최초는 아니었을 터이니 얼마나 유서 깊은 놀이인가. 그런데도 유독 왕희지의 고사만이 그토록 성대히 전해오면서 고려는 물론 조선조 내내 선비들이 이를 모방하는 모임을 가지고, 시를 읊고, 그림으로까지 그렸던 것은 단순히 그가 만고 명필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왕희지에 대한 전인격적 흠모가 깊었기 때문이다. 그의 절의, 문장, 처신, 명필, 이 모든 것을 우러러 존경했던 것이다. 완당(阮堂) 김정희 선생도 <이운명추



맑은 정신이 없으면 맑은 사람이 없고, 맑은 사람이 없으면 맑은 자연도 없다. 맑은 자연은 선비들이 진정으로 지니고 싶어 하던 모습이고 기상이었다. 자연 속에서 놀이를 즐겼던 것은 그런 정신적 지향점 때문이다.

允明의 수계첩修契帖 뒤에 쓴다)는 글에서 “난정의 모임을 본떠 모임을 갖는 것은 단지 상서롭지 못한 것을 털어내고 술 마시고 시를 읊으며 노닐자는 것이 아니요, (중략) 우러러 우주의 큼을 보고 굽어 품류品類의 성함을 살피는 일이 마음의 올바름에서 나오기에 회포를 풀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자연 속에서의 놀이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정신적 지향점을 분명히 가진 놀이였음을 알 수 있다.

옛 선비들은 ‘이문회우以文會友’라 하여 글로써 친구를 사귀었다. 언어를 존재의 집이라고 하지 않던가. 말과 글은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글의 격이 낮고 말로 실수를 하는 것을 수척스럽게 여겼다. 이는 심성의 황폐함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좋은 생각, 좋은 느낌을 시로 읊어 선물처럼 건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풍류인지! 그것이야말로 풍류 전통 가운데 가장 빛나는 것이다. 자연 풍광도 술이나 안주도 연회에서는 하나의 소품일 뿐이다. 연회를 가장 빛나게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참석 한 사람들의 면면이다. 모여서 시를 짓고, 그 시를 모아 시축을 만들어 그 자리를 기념하는 것은 그야말로 풍류 중의 풍류이니, 이를 무엇으로 흉내 낼 수 있겠는가. 유상곡수연은 봄날의 풍류로는 가히 최고라 할 수 있다.

아낙네의 소박하고 정겨운 풍류

선비들만 그렇게 격조 높고 운치 있는 봄날의 풍류를 누렸던 것은 아니다. 아낙들은 화전놀이를 했다. 일가친척끼리 쌀이며 찹쌀, 기름, 그릇 같은 것을 형편대로 조금씩 모아서 찹꽃을 따다가 화전을 부쳐 먹으며 속마음을 털어놓곤 했다. 살아온 내력과 신세 한탄은 물론, 이런저런 시집 식구들 흥이며, 동네 아낙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숨김없이 털어놓는 자리가 화전놀이 자리였다. 고려가요 <동동>의 3월령도 화전놀이를 연상케 하니, 이 화전놀이도 유상곡수연 못지않게 오래된 것이다.

계곡谿谷 장유張維(1587~1638) 선생의 시 <답청일踏靑日에 병들어 누워 붓 가는 대로 회포를 쓴다>의 한 대목은 화전놀이를 하고 오는 풍경을 이렇게 그리고 있다.

어린 복사꽃과 무성한 자두꽃	夭桃與穠李
흰색 붉은색 어울려 피었네.	紅白開相參
더구나 매마침 비 온 뒤라	況值新雨餘
맑고 곱게 갠 햇살 머금었구나.	澄鮮晴景含
꽃다운 절기 세상이 중히 여겨	芳辰世所重
시절 음식 좋은 맛 탐한다네.	時物佳可探

물가엔 미인들이 가득 모여들고	水邊多麗人
길거리엔 말과 수레 교차하누나.	陌上交駉驪
여인들이 새로 화장해 돋보이게 하고	新粧鬪粉墨
나들이옷 울긋불긋 차려입었네.	衫服襍茜藍
해질녘 노래와 풍악 소리	日暮歌管動
거나하게 취한 이들 부축받고 가네.	扶路多昏酣

이 시는 답청을 다녀오는 길의 광경을 그려낸 것이지, 아낙들의 화전놀이 풍경 자체는 아니다. 아낙들은 <화전가>라는 내방가사를 지어 부르며 자신들의 놀이 풍경을 그려내고 심정을 표현했는데, 그런 화전가는 고을마다 전해온다.

이런 화전가 가운데 최고의 백미는 <텐둥어미화전가>이다. 한 여인이 과부가 되면서부터 겪은 기구한 인생 여정을 담아내고 있는 가사로, 텐둥어미의 회로애락을 따라 마을의 부녀들이 함께 울고 웃고 할 수 있는 ‘공감의 서사시 그 자체’이다. 그렇게 솔직한 진심과 진정이 오가고, 마을 아낙끼리 서로의 인생사에 공감을 느끼고 동병상련의 정을 품을 때면 화전놀이가 끝나고, 봄날 하루가 아쉽게 저문다.

결국 풍류는 맑은 정신에서 나오는 것

풍류를 즐기는 어떤 모임에서도 거창한 연회 장소, 고급 술과 차, 기름진 안주 같은 것은 형식적 소품에 불과하다. 연회에 참석하는 사람, 그 사람의 무게만큼 빛나는 것은 없다. 아무리 노래를 잘하는 기녀도, 아무리 춤을 잘 추는 기녀도, 아무리 악기 연주를 잘하는 악공도, 시로써 한 줄 정신의 빛을 드리울 선비가 없으면 그 자리는 내세울 풍류가 없는 것이다.

결국 최고의 풍류란 우리 내면에 참된 힘을 드리우는 한 줄의 문장, 한 줄의 시, 한 가닥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다. 맑은 정신이 없으면 맑은 사람이 없고, 맑은 사람이 없으면 맑은 자연도 없다. 비 갠 뒤에 부는 맑은 바람, 그 바람 끝에 떠오른 달 같은 모습, 그것은 선비들이 진정으로 지니고 싶어 하던 모습이고 기상이다. 그런 선비가 있으면 그 자리에 풍류는 저절로 생겨났다. ■●

운치 있는 봄날 아낙들은 화전놀이를 하며 풍류를 즐겼다. 일가친척끼리 쌀이며 찹쌀, 기름, 그릇 같은 것을 형편대로 조금씩 모아서 찹꽃을 따다가 화전을 부쳐 먹으며 속마음을 털어놓곤 했다.

풍류를 즐기는 어떤 모임에서도 거창한 연회 장소, 고급 술과 차, 기름진 안주 같은 것은 형식적 소품에 불과하다. 연회에 참석하는 사람, 그 사람의 무게만큼 빛나는 것은 없다. 아무리 노래를 잘하는 기녀도, 아무리 춤을 잘 추는 기녀도, 아무리 악기 연주를 잘하는 악공도, 시로써 한 줄 정신의 빛을 드리울 선비가 없으면 그 자리는 내세울 풍류가 없는 것이다.





슬픔에서 움텃지만 의연한 경기소리처럼

경기도 무형문화재 임정란

춤과 노래가 직업이고 일상인 이의 삶은 풍류 그 자체일까.
그들에게 풍류는 삶의 대로를 벗어난 한갓진 오솔길, 여유, 쉽표가 아니다.
삶의 질곡조차도 풍류에 담을 수밖에 없다.
풍류가 스민 삶이 아니라 삶이 댄 풍류다.
그들은 저마다의 삶으로 자신만의 풍류를 완성해낸다.

글 허행운 <경기일보> 기자 | 사진 이한구

어린 시절, 아버지는 해마다 초겨울 장독대 옆에 구덩이를 파고 그 위를 짚으로 덮었다. 겨우내 먹을 식품을 저장하기 위해서였다.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 움이다. 사과를 넣으면 '사과움', 감자를 묻으면 '감자움'이 되었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중부지방에서는 흔히 볼 수 있었던 겨울 풍경이다. 동구 밖 개울 버드나무에서 새순이 돋으면 어느새 구덩이에서 갖다 먹던 사과나 감자, 김치나 무가 돋아났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움은 행하니 비워졌다. 이 단출한 1음절 단어인 움에는 많은 것이 녹아 있다.

자연스러운 풍류의 무대 '움'

그런데 경기도 사람들은 해빙기가 되면 움을 그냥 놔두지 않았다. 오늘날 무대에 해당되는 '놀이터'로 바뀌는 것이다. 움은 그렇게 수백 년 이 땅에 존재해왔다. 삼면을 둘러 널빤지를 깔고, 그 주위로



웅기종기 모여 앉으면 현란한 조명장 치나 음향시설이 없어도 훌륭한 무대와 객석이 만들어졌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다 누군가 일어나 목청을 돋우면, 누군가는 흥에 겨워 장구를 두드렸고, 누군가는 추임새를 넣었다. 더러는 곳 거리장단으로 발을 구르기도 했다. 덩기덕 쿵 더러러 쿵기덕 쿵 더러러... 영남지방이나 호남지방의 장단처럼 까닭 모를 한이 느껴지진 않았다. 흥겨웠고 '늠름하게' 슬펐고 절박했다. 그렇게 한바탕 콘서트가 벌어지다 보면 어느새 땅거미가 져고 장구 줄에는 싹짓돈이 끼워졌다. 요즘 버전

으로 치면 엔터테이너에 대한 일종의 예의禮儀였던 셈이다. 이 땅에서 고단하게 살아온 서민들의 놀이마당, 이 땅의 풍류였다.

경기소리 무형문화재 임정란(67세)의 첫 무대는 아마도 '움'이었을 것이다. 까치밭로 어른들 어깨 너머로 구경했던 호기심 많은



맹기머리 소녀 시절, 움은 언젠가는 올라서야 할 무대였다. “규모가 조금 큰 건 둥글게 구덩이를 파고 원뿔 모양의 뼈대를 세워 그 위에 지붕을 덮습니다.” 그의 기억대로라면, 규모가 가장 큰 움은 긴 네모꼴로 구덩이를 파고 어른 키만큼의 나무 기둥을 세운 다음 기둥머리 위에 막대를 걸치고 이 막대와 땅에 걸쳐지게 세모꼴로 서까래를 얹어 지붕을 이은 것이다.

이제 그의 ‘움’은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433의 2번지에 있다. 그 ‘움’ 뒤편으로 관악산冠岳山이 떡하니 내려다보고 있다. ‘한양이 무섭다고, 과천부터 건다’는 그 위압감은 듽성듬성 화강암들이 보이는 이 산의 위세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호흡을 가다듬고 숨을 내쉬면 가슴이 넓어지고 마음도 편해진다. 그의 집안은 옛날 말로 광대 집이라 불릴 정도로 무舞와 악樂에 능했다. 여성 국극단에서 가야금을 연주한 어른과 호적(태평소)을 연주한 어른이 계셨고, 줄타기의 명인 임상문 씨는 그의 오촌 당숙이었다.

경기소리를 가슴에 품다

아무래도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겠다. “어려서부터 집안 분위기 탓에 노래와 춤을 좋아하고 즐겼습니다. 교내 합창대회는 물론 시·군 경연대회에서도 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자

연스럽게 소리와 인연을 맺게 되었죠.” 본격적으로 소리를 시작한 건 1963년, 사돈뻘 되는 친척인 대감놀이의 명인 고故 지연화 선생의 권고로 고故 이창배·정득만 선생이 운영하던 청구고전 성악학원에 입학하면서부터다. 청구고전 성악학원은 명창을 많이 배출한 곳으로, 당시로서는 독보적인 성악학원이었다. 그곳에서 경기소리와 서도소리를 비롯해 가곡·가사·시조 등 명창으로서 갖춰야 할 예능을 고루 배웠다. 그는 지금도 이창배 선생의 남다른 교수법, 즉, 직접 소리를 내며 가르치기보다는 장구채로 음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가르치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그가 이렇게 접한 가락은 경기지방에서 수백 년 이어져 내려오는 ‘경기소리’였다. 소금물 수십 사발을 마시고 목에서 수십 사발의 피를 뱉어내야 도달한다는 득음得音이나 성음成音 등도 거쳤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의 ‘경기소리’는 까탈스럽지 않고 녹록하고 편하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섬세纖細’하다.

그를 이야기할 때, 스승인 목계월 선생을 빼놓을 수 없다. 성악학원을 수료하고 국악 공연을 하던 당시 몇 차례 자리를 함께했고, 이후 1975년 목계월, 고故 안비취, 이은주 선생이 12잡가를 네 곡씩 맡아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로 지정받았다. 그는 목계월 선생의 첫 번째 장학 진수생으로 선정되어 1983년 진수 조교가 되었

다. 1990년 마침내 보유자 후보에 오르기까지, 칭찬보다는 호된 꾸짖음을 더 많이 받았다. 그리고 1999년 10월 18일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1호로 지정받는다. ‘경기소리’를 마침내 하나의 고유명사로 가슴에 품게 된 시점이었다.

경기각쟁이들의 슬프지만 늠름한 풍류

흔히 ‘경기京畿’에서 ‘경京’은 중국 황제가 도읍한 경사京師를, ‘기畿’는 황제의 거주지인 왕성王城을 중심으로 사방 500리 이내의 땅을 의미한다. 즉, 서울을 중심으로 500리 이내의 땅을 말한다. 이 땅 한복판에 살고 있다는 자존심이 배어 있는 말이다. 그래서 서울각쟁이란 말과 경기각쟁이란 말은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이 각쟁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외적의 술한 침략과 침탈과 역모逆謀로 치칭되는 내란과 정쟁 등을 온몸으로 겪으며 살아야 했던 이들이다. 그 와중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면서도 내색하지 않고 꾀스레하게 살아갔던 이들이다. 이렇듯 ‘각쟁이’란 말에는 차마 밖으로 내비치지 못하는 슬픔까지도 담겨 있다. 벗이나 부모에게도 말하기 어려웠던 그 속내는 꾀명다 못해 허양계 탄 백탄白炭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지켜낸 늠름함과 당당함이 경기소리에 있다. 경기소리의 기본 율조가 한이 잔

뜩 담겨 있는 느린 ‘진양조’가 아니라, 18분의 8박자나 4분의 6박자의 ‘도드리’ 장단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어느 주말 오후에 불쑥 자신의 ‘움’을 찾아온 이방인에게 그는 경기 12잡가(유산가, 적벽가, 제비가, 소춘향가, 집장가, 형장가, 평양가, 선유가, 출인가, 십장가, 방물가, 달거리)의 한 곡인 ‘유산가’를 들려주었다. 처음에는 새가 먹이를 찾아 창공을 가르고 솟구치는 듯하더니, 갑자기 아래로 저공비행低空飛行하듯 추락하는, 역동적인 소리가 반 시간 이어졌다. 언뜻 자유분방하게 느껴지지만 치밀하게 계산된 경기각쟁이의 질서와 기품이 있는 소리였다. 잡가는 비교적 긴 사설을 기교적인 음악 어법으로 부르던 전문 소리꾼의 노래다. ‘잡雜’이라는 의미 때문에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스승에게 제대로 배워야 부를 수 있는 노래다. 그러나 이 노래가 담고 있는 가사의 정서는 서민의 녹록지 않고 자유분방한 삶이었으니, 잡가는 서민을 위한, 서민의 풍류다.

그렇게 잠시 풍류에 취해 있다 돌아오던 날, 쪽빛 창공에서는 박하사탕 같은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어디선가 장구 소리가 들려오자, 겨드랑이가 간지러워지면서 입술 사이로 휘파람이 절로 나왔다. 직접 소리를 내고 어깨춤을 추지 않았지만, 마음이 들썩이고 몸이 작은 추임새를 넣고 있었으니, 이 역시 풍류이리라. ■●

꽃이 피고 벚이 있는데 술이 빠지면 섭섭하지 않겠는가

좋은 경치를 감상하며 심상을 떠올려 시를 짓고,
자연의 소리와 조화를 이루는 음으로 현을 타고,
그 소리를 들으며 친구와 담소하고,
마음의 흥을 돋울 정도로만 술을 마셨다.
절제된 즐거움이기에 더 오래,
더 많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쾌락을 아끼며 참된 쾌락에 이르는 풍류라니,
정말 근사하지 않은가!

글 허시명_전통주 전문가 | 사진 이한구



조선시대에는 수시로 금주령을 내렸다. 왕권이 강한 시절일수록 자주, 그리고 강력하게 금주령이 시행되었다. 태종, 세종, 영조는 금주령을 자주 내렸던 임금들이다. 술이 사람의 본성을 해치고 화란禍亂을 일으킬까 염려해서, 천재天災를 없애기 위해, 그리고 물자를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기상이변이 생기거나 흉년이 들면 우선 금주령을 내렸다.

술을 금한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술이 꼭 필요한 이유도 있었다. 불교 사회였던 고려시대에는 불교식 차례를 지냈지만 조선시대에는 유교식 차례를 지내면서 술을 올렸다. 그리고 노인을 봉양하는 데 술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여겨 술을 대접했다. 부모 형제를 환영하고 전송할 때도 술이 빠지지 않았다.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혈맥을 통하게 하는 약으로 술을 이용하기도 했다. 이런 이유들이 금주령에 맞서, 술 빚기를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로 내세운 것들이다.



김득신 | 풍류중추도본 | 1815년 | 95.2 x 35.6 cm |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옛사람들은 자연을 벗 삼아 시를 지으며 술을 마셨지만, 오늘날에는 퇴근 후 다들 술집으로 달려가 술을 마신다. 술 마시는 방식이 완전히 변했다. 술자리에서 시와 자연이 사라지면서, 풍류도 함께 사라졌다. 오늘날에는 술 마시는 것도 자연의 속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계의 속도를 따라가듯이 속도전을 벌인다.

금주령도 피해간 이들은 누구일까?

그런데 아무리 금주령이 삼엄해도 이로부터 자유로웠던 이들이 있다. 바로 사간원 사람들이다. 사간원은 간쟁과 논박을 하는 집단으로, 탄핵권과 인사권을 가졌다. 요즘으로 치면 언론과 법원 그리고 감사원 기능을 한손에 쥔 집단이다. 이 때문에 사간원의 간관은 신분을 보장받고, 특별 예우를 받았다. 내부 규율도 상하 사이의 존대와 하대가 없었다. 어느 자리라 하더라도 상관이 먼저 들어가면 북쪽을 면하고 서서 아랫사람을 기다려 서로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다.

사간원 간관의 긴장이 컸기 때문일까 아니면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서였을까. 금주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간원 사람들은 술을 마셨다. '아란배'라는 거위 알처럼 생긴 특별한 잔을 사용했는데 둥근 잔이라 바닥에 내려놓을 수 없었다. 아마도 '원샷 잔'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자기 집단의 특징을 내세울 수 있는 술잔이 있었고, 술 마시는 관행이 있었다는 점이다. 요즘으로 치면 부처별로 술 마시는 스타일이 다른 것이다.

관리들이 술을 마시는 대표적인 관행으로는 봄날 교서관에서 복숭아꽃 나무 아래에 모여 마시는 '홍도음紅桃飲', 초여름 예문

관에서 장미꽃 향을 맡으며 마시는 '장미음薔薇飲', 한여름 성균관에서 푸른 소나무 그늘에서 마셨던 '벽송음碧松飲'이 있다. 이들은 술안주로 오르는 물고기를 용, 닭을 봉, 탁주를 현자, 청주를 성인이라 부르면서 즐겼다.

잔 잡고 봄 즐기니 봄 또한 좋아라

옛사람들은 자연을 벗 삼아 시를 지으며 술을 마셨지만, 오늘날에는 퇴근 후 다들 술집으로 달려가 술을 마신다. 술 마시는 방식이 완전히 변했다. 술자리에서 시와 자연이 사라지면서, 풍류도 함께 사라졌다. 오늘날에는 술 마시는 것도 자연의 속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계의 속도를 따라가듯이 속도전을 벌인다. 일차에서 이차로 차수를 변경하여 취할 때까지 마셔댄다. 강박적으로 마시는 폭탄주도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술자리에서 시를 짓고, 거문고를 다뤘던 선인들의 술자리가 그렇다. 중국에 주성酒聖 이태백이 있다면, 이 땅에는 그에 필적할 인물로 삼혹호三惑好(시와 술과 거문고를 좋아했다는 뜻) 이규보가 있다. 이규보는 "술이 없으면 시도 지어지지 않고 / 시가 없으면 술도 마시고 싶지 않아 / 시와 술을 내 모두 즐기니 / 서로 어울리고 서로 있어야 하네"라고 했다.

시와 자연과 술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가 잘 드러나 있는 시다. "하늘이 내게 술 못 마시게 할 양이면 / 아예 꽃과 버들 피어나게 하질 말아야지 / 꽃 버들이 아리따운 이때 어이 안 마시리 / 봄은 나를 저버릴 망정 나는 그리 못하리 / 잔 잡고 봄 즐기니 봄 또한 좋아라."

성종의 형으로 은둔하며 지냈던 월산대군도 술을 가까이 했다. 월산대군은 고양에 살아 한강 하류에서 종종 낚시를 즐겼다. 그는 "추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 낚시 드리우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 / 무심한 달빛만 싼고 빈 배 저어 오노매라"고 했다. 그는 낚시에서 돌아와 술 한 잔으로 무심함을 달랠 것이다. 그가 쓴 멋진 시조가 더 있다. "창밖에 국화를 싼고 국화 밑에 술을 빗어놓으니 / 술 익자 국화 피자 벗님 오자 달이 솟네 / 아이야 거문고 청 처라 밤새도록 놀아보리라."

옛사람들이 자연과 술을 벗하며 남긴 시는 많다. 그중에서도 시조의 대가로 평가받는 이정보의 시조 한 편이 절창이다. "꽃피면 달 생각하고 달 밝으면 술 생각하고 / 꽃피자 달 밝자 술 얻으면 벗 생각하네 / 언제면 꽃 아래 벗 데리고 완월장취玩月長醉 하려나." 술과 짝했던 것은 꽃이고 달이고 벗이었다.

물론 현대인도 소리를 즐기고 음악을 즐긴다. 시를 짓듯 노래

방에서 대중가요를 열창하고, 거문고와 가야금 소리에 몸을 맡기듯 노래방 반주에 몸을 신는다. 노래방에서 부르는 노래는 듣는 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부르는 이 스스로를 위한 것일 때가 많다.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내는 푸닥거리처럼 노래를 뽑아낸다. 시는 다르다. 서로 한 잔씩 돌려가면서 짓고, 차운하여 짓고, 화답하여 짓고, 자신의 재주를 뽐내며 함께 어우러지면서 자신을 놓아버리지 않는 풍류가 있었다.

어제와 다른 술이 풍류를 만든다

옛사람의 풍류를 지금 우리의 삶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은 없을까? 이는 어떻게 하면 우리 술 문화 속으로 자연을 끌고 들어올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이기도 하다. 예전에는 창문만 열면 자연이었지만, 이제는 창문만 열면 아파트요, 차길이라 자연을 찾으려면 멀리 이동해야 한다. 이동하려면 차가 필요하고, 차를 몰면 술을 못 마시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리고 현대의 술은 나를 위해 빚어진 게 아니다. 오늘날에는 대량생산해서 상품화한 술만이 존재한다. 이곳에서 마시나 저곳에서 마시나 똑같으니 굳이 공간 이동을 할 필요도 없어진다. 송강정철이 고양에 살면서 파주에 사는 성권룡을 찾아갔던 것도 술 핑계를 대고서였다. "재 너머 성권룡 집의 술 익었다는 말 어제 듣고 / 누운 소를 발로 박차 말안장 위에 올라타고 / 아이야, 네 주인 게 시나 정좌수 왔다 하여라."

풍류를 찾으려면 개성을 찾아야 하고, 개성을 찾으려면 좀 색다른 술들이 있어야 한다. 색다른 술을 갖추는 방법의 하나는 어제와 다른 술을 찾아 마시는 노력일 테고, 다른 하나는 직접 술을 빚어서 마시는 방법이다. 나는 우선 후자를 권한다. 자기가 직접 빚은 술이 있으면 술을 좋아하는 누군가를 초대하여 함께 그 술을 나누고 싶어진다. 자연히 어디에 담아 마실 것인가, 어떻게 마실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게 된다. 그저 아무 음식점이나 술집에 들어가서, 그 술집에 마련된 술을 소비할 뿐인 지금의 음주 문화로서는 개성 있는 풍류 문화를 찾을 길이 없다.

막걸리는 빚기 쉽다. 막걸리 빚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곳도 생겨났다. 내가 빚은 막걸리는 거칠고 소박하겠지만, 다른 맛이라 선인과 같은 봄날의 풍류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옛그제 쥐빚은 술을 술동이째 메고 나니 / 집안 아이들은 허허쳐 웃는고나 / 강호에 봄간다하니 전송하러 하노라." ■■■



사진촬영 장소 제공 이동주조

경기도 전통주는 어떤 맛과 향기를 갖고 있을까?

조선시대에는 지금보다 더 다양한 경기 술을 맛볼 수 있었다. 사대문 밖이 경기도였으니, 서울의 술이 경기도 땅으로 유입되어 두루 퍼졌을 것이다. 아쉽게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경기도 술은 그때만큼 풍요롭지는 않다. 그리고 남한 인구의 절반이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에 살고 있는 것처럼, 원래 경기도 태생이 아니었지만 경기도에 터 잡고 문화재까지 된 술이 여럿 있다. 여기에 소개하는 네 가지 술 가운데 세 가지는 다른 지방에서 이주해온 것이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호 남양주 계명주鷄鳴酒

평안도 지방에서 두루 빚었던 옛탁주인데, 남북이 분단되고 난 뒤 경기도에 정착하면서 경기도 문화재 제1호가 되었다. 옛탁주는 특이하게도 누룩을 조청에 버무려 향아리에 보관한다. 은근한 불로 가마솥에서 수수를 달여 두 번에 걸쳐 당화시키는 것은 강원도 지방에서 엿술을 만드는 과정과 흡사하다. 옛탁주는 붉은 수수로 빚어서 빛깔이 붉다. 계명주로 등록된 옛탁주는 요즘에는 옥수수과 수수를 섞어 쓰기 때문에 노르스름한 술로 바뀌었다. 술 도수는 11도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호 부의주浮蟻酒

부의주는 술에 동동 떠 있는 밥알의 모습이 마치 개미 같다 해서 붙인 이름이다. 부의주는 찹쌀과 누룩, 물 말고는 어떤 첨가물도 사용하지 않는다. 약주처럼, 탁주에 용수(갈래기 모양의 옹기)를 대고 거른다. 용인민속촌에서 안동 사람 권오수 씨가 찹쌀로 동동주를 빚으면서 이름을 알렸다. 1987년 경기도 무형문화재 2호로 지정받았고, 화성에서 부의주를 상품화했다. 권오수 씨가 작고하고 그 기능을 아들 권기훈 씨가 이어받았지만, 현재 제조장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다. 권오수 씨의 부의주를 맛보려면, 다시 용인민속촌으로 찾아가야 한다. 용인민속촌에는 권오수 씨로부터 기술을 배운 이정동 씨가 동동주를 빚고 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2호 용인 옥로주玉露酎

옥로주는 섬진강가의 화개장터에서 팔던 술이다. 옥 같은 이슬이 소줏고리(양조주를 증류시켜 소주를 만들 때 쓰는 옹기)에서 떨어진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다. 옥로주는 쌀과 율무를 6대 4로 섞어서 술을 빚는다. 밀술을 만들고 나서, 덧술을 세 차례 더 만든다. 부글부글 끓던 술이 사그라질 때 고두밥을 넣어서 재차 발효시키면 알코올 도수가 높게 나온다. 율무는 덧술을 만들 때 찌서 넣는다. 옥로주는 45도 독주다. 빛은 투명하고, 향은 그윽한데, 맛은 독하고 쓰면서도 고소하다. 1993년 경기도 무형문화재 12호로 지정될 때는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에 있어 당정堂井 옥로주라 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3호 남한산성 소주

남한산성은 조선 숙종 때 이미 1000가구가 모여 살던 번성한 동네로 작은 서울이란 소리를 듣기도 했다. 남한산성 소주는 누룩과 술을 빚을 때 다른 술과 달리 조청을 사용한다. 40도나 되는 높은 도수에 비해 맛이 부드러운 편이다. 한 모금 마시면 입술에 얽은 전류가 흐르는 듯하고, 혀끝이 알싸해진다. 감식필 씨는 아버지에게 배운 술을 재현하여 1994년에 경기도 무형문화재 13호, 남한산성 소주 기능 보유자가 되었다.

글 허시명_전통주 전문가

봄날에 어울리는 빛깔 고운 진달래술을 만들어보자

두견주는 전국적으로 널리 빚어졌던 술인데, 지금은 면천 두견주가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두견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먼저 간단한 방법부터 소개한다. 청주에 진달래꽃을 담은 주머니를 넣어 한 달 이상 그대로 두었다가 청주를 떠내거나, 청주에 말린 꽃을 주머니에 넣어 술 표면에 닿지 않도록 매달아 땅속에 묻어두고 천천히 향을 흡수하게 한다. 재래식 소주에 진달래꽃을 넣어 몇 개월 후에 걸러도 된다. 좀 더 본격적으로 진달래술을 맛볼 요량이라면 면천 두견주를 담가본다. 면천 두견주는 단맛과 점성이 있고 향기가 좋은 술로 매운 맛이 도는 주도 높은 고급술이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진달래와 비슷한 철쭉꽃을 넣으면 철쭉꽃의 독 때문에 피부병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비슷하다고 철쭉꽃을 사용하면 안 된다.

1. 밀술 만들기_ 찹쌀 2되, 누룩 2되, 물 1되를 재료로 하는데, 찹쌀로 지어 밥을 만든 후 식혀 누룩 가루와 물을 혼합하여 향아리에 넣는다. 약 1주일 후 내부 온도가 40℃ 정도가 되면 덧술을 넣는다.
2. 덧술 만들기_ 재료는 찹쌀 1말, 누룩 2되, 물 5되, 꽃술을 제거한 진달래 1되 3흡으로, 진달래는 기호에 따라 가감한다. 꽃이 너무 많으면 술빛이 붉어지는데, 약용 목적으로 쓸 때에는 좀 더 많이 넣는다. 밀술, 누룩

- 가루, 지에밥을 함께 넣고 치대면서 고루 섞어 향아리에 넣는다.
3. 이때 진달래를 켜켜이 섞으면서 넣는다. 약 50일 이상 숙성 기간이 필요하다.

* 위의 글은 <우리 땅에서 익은 우리 술>(조정형 저, 서해문집)에 실린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현대적 풍류로 일상의 숨통을 틔우다

자연을 벗 삼지 않아도 소소한 풍류를 즐길 수 있다.
옛사람들의 흥과 멋을 느낄 수 있는 그림이나 글씨로 꾸민
문화상품을 곁에 두고 사용하는 것이다.
물 흐르고 바람 부는 곳을 찾아갈 수 없다면,
내가 있는 그곳에 물과 바람을 만들자.
이것이 현대의 풍류다.

글 편집부 | 사진_국립중앙박물관, 경기문화재단 제공

짧은 글, 긴 여운

시간이 커켜이 쌓여 나와 내가 '우리'가 됐다. 장황하게
설명해도 이해가 불가능했던 시간이 지나고 메모지의
짧은 글 한마디로도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됐다.
-국립중앙박물관



술 대신 차

봄별이 좋으니 꽃놀이가 간절하고, 봄바람이 좋으니
술 생각이 절로 난다. 주말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옥상에서나마
봄바람을 쐬며, 달콤한 커피로 봄맞이를 먼저 한다.
-경기문화재단

잠깐 멈춤

쉽 없이 달리다 보면 앞만 보인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볼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놓치고 지나친다.
잠시 여유를 갖고 주변을 살피면 지나온 길의 아름
다움이 뒤늦게 다가온다.
-경기문화재단



줄 따라 생겨나는 길

여백뿐이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 끝까지 잘 쓰겠다는
다짐부터 비우니, 마음이 한결 가볍다. 한 획을 긋는다. 시작이다.
-경기문화재단



느슨하게, 조금 더 바람이 스미도록

사회생활은 조여 맨 타이처럼 답답하다.
그런데 늘 조여 매면 숨 막혀 죽는다. 가끔은
공기가 통하도록, 조금만 느슨하게 풀어보자.
셔츠와 타이의 공간만큼 여유가 생긴다.
-경기문화재단



비워야 담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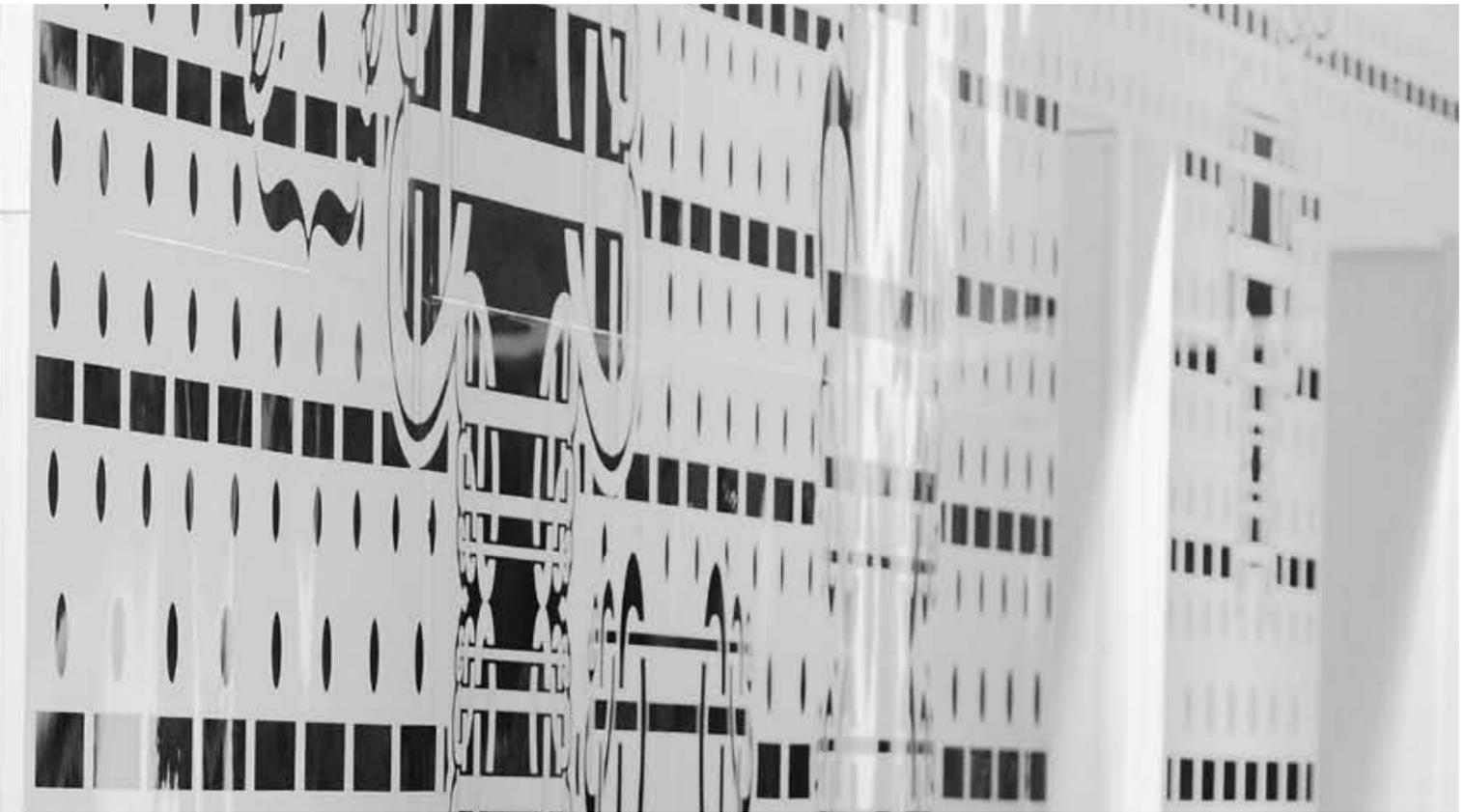
복잡한 심정, 사소한 감상을 비워야 다른 것을 담을 수
있다. 바람이 불어와 쓸모없는 것을 '삭제'해주면 좋겠다.
텅 빈 공간이 되어 다시 잘 채워가고 싶다.
-경기문화재단



마우스가 움직이면 꽃이 핀다

이동과 선택 사이에 마우스가 있다. 선택하고 나면 이동하고,
이동하고 나면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과 닮아 있다. 마우스
는 오늘도 그 자리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며 꽃을 피운다.
-국립중앙박물관





회화여, 건축을 이겨내고 일어나라

이상남(57세) 씨는 미국 뉴욕에서 그림 하나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한국인 화가 가운데 한 명이다. 그가 경기도미술관 로비에 제작한 46미터 길이의 벽화 <풍경의 알고리즘>이 올해 1월 공개되자마자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미술관의 명물로 떠올랐다. '그것은 전쟁이었다'고 벽화 제작 뒷이야기를 공개한 작가의 '나의 그림, 나의 투쟁'

글 정재숙 <중앙일보> 문화부 기자 | 사진 이한구





정재숙 세월이 선생님을 비켜가는 모양입니다. 몇 년 터울로 볼 때마다 더 젊어지시는 비결이 뭐니까.

이상남 노동이죠. '나인 투 식스(9 to 6)'로 일합니다. 제 작업실은 공장입니다. 2006년 서울 강남 LIG손해보험 사옥의 20미터 길이 벽화를 작업할 때는 구로구 천왕동 야산 가까이 엮드린 컨테이너 박스가 임시 스튜디오였어요. 경기도미술관 벽화는 용인의 한 폐 공장에서 완성했어요. 옷칠을 하거나 표면을 사포로 문지르죠. 한 점 한 점 완성하는 데 1년 이상 걸리는 작품들인데 개들이 저 좀 봐달라고 난리니 쉴 수가 없어요. 화가더러 밥 먹고 이 짓만 하라는데 뭐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발 뺨을 집 있고 캔버스와 물감 너럭하니 세상에 이런 근자 놀음이 없지요.

정재숙 1970년대 한국 미술계에서 잘생기고 활개 치고 다니는 멋쟁이로 유명하셨잖아요. 무대미술 제작 건으로 인연이 닿은 현대 무용가이자 명상가 홍신자 씨가 당시 선생님을 '40년 만에 이렇게 열렬한 사람을 처음 만났다'고 기억할 정도로요. '그는 불이었다. 물속을 지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또한 물이었다. 불 속을 지나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이라고 말한 대목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상남 하하, 그랬나요. 1981년 미국 뉴욕으로 건너가면서 도인이 됐죠. 스탠턴 거리 176번지는 전쟁 끝의 폐허 같은 동네였어요. 밤이면 쥐가 돌아다니는 허름한 10평 남짓 아파트에서 밤마다 마음을 갈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낮에는 막노동이나 페인트칠을 하러 다니며 양식을 구해야 했지만 누가 그림을 사겠다고 해도 팔지 않았어요. 팔기 위해 그리는 것도 아니고, 내 손을 떠나도 될 만큼 완성된 작품이 없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그 가난이 익숙했구요.

새로운 아이디어, 창의적인 사고의 도가니 같은 뉴욕이 저를 키운 셈입니다. 예술가들이 무한경쟁으로 내몰리는 살인적인 그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다고나 할까. 좋은 화랑과 안목을 지닌 관객이 서울의 한 100배쯤 있는 뉴욕이 내 선생님이었어요, 지금 돌아보니.

같이 갈아서 저절로 된 그림이다

정재숙 작품 얘기를 하실 때 '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어떤 의미 인가요.

이상남 피 말리는 뉴욕 생활 6년 뒤, 명상 서적을 읽고 명상 음악을 들으며 탁발승이 사막으로 걸어 들어가듯 그림의 모래밭에 들어섰어요. 걱정이 가라앉으면서 깊은 면과 부드러운 선이 화면을 구르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갈다'는 내 화두가 됐습니다. '갈다'는

여러 뜻이 겹친 말이죠. 맞대어 세계 문지른다는 것, 문질러 닦게 한다는 것, 문질러 빛이 나거나 살이 서게 하는 것, 바수는 것, 또는 연마하거나 훈련하는 것, 사각사각 먼도날로 땀가를 갈 때 느끼는 강렬한 느낌. 타인의 촉각 건드리기가 제 그림입니다. 뉴욕 작업실에 가면 천장 가득 제가 한 손 드로잉 화첩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그림은 그 수십 만 번의 갈고 씹음에서 나온 겁니다. 짝퉁은 아니라는 증거죠.

정재숙 선생님 작품을 보면 화면의 매끄러움이 사람 마음을 반지르르고 들어와요.

이상남 제 작품은 자연이 아닌 인간의 상상 속에서 형성된 형태들에서 시작합니다. 선은 죽음을, 원은 삶을 뜻합니다. 모든 인간의 시간은 선과 원으로 형성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그림은 죽음의 직선과 삶의 원을 포용하고 있습니다. 탄생과 죽음이 나선형의 대각선을 이루며 긴장 속에 휘돌죠. 내 예술은 직선과 원이 무화無化되는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영원한 깨임이요, 벗음입니다. <풍경의 알고리즘(연산법)>이란 제목 그대로입니다. 기하학적 원근이 연산법의 여러 형태인 덧셈, 뺄셈, 나눗셈 등 여러 개의 수학적식을 통해 평면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해서 호수에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제 몸으로 분열을 일으키며 음악처럼 멀리멀리 퍼져가죠.

경기도미술관 로비 벽화 작업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젠 21세기 신세기의 메시지다. 벽면 앞쪽에 돛대 형상으로 휘어진 유리 구조물을 받쳐주며 두둥실 우주로 떠나갈 듯 휘파람을 불어보자. 보는 이들이 우주의 파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뿔별 같은 저 벽면을 껌 씹듯 가볍게 눈으로 씹어줬으면, 깨물어줬으면 좋겠다고. '추잉 이미지Chewing Image'죠.

건축물에 놀리지 않는 회화를 보여주겠다

정재숙 끝이 가물가물한 우주선 통로처럼 광활한 흰 벽면을 평면 작품으로 매끈하게 밀어버리셨잖아요. 도대체 그 거대한 벽을 어떻게 그렇게 주무를 꿈을 꾸셨어요.

이상남 사실은 경기도미술관에 들어갈 제 작품 얘기를 하러 간 참이었어요. 근데 벽면을 처음 본 순간, 날 기다리고 있는 운명적 애인을 만난 듯 '필'이 꽃힌 겁니다. '이 벽은 내 거다' 싶으면서 미쳐버린 겁니다. 폭이 46미터, 높이 5.5미터의 2층 높이 벽을 마주하면서 '야 이거 되게 크다' 하고 놀랐지만 새로운 비주얼에 도전하고픈 의욕이 솟구쳤어요. 건물을 회화처럼 주물러대는 현대 건축가

와 그 건축물에 놀리지 않는 화가의 그림을 보여주겠다고 결심했죠.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을 설계한 프랭크 게리가 대표하듯 요즘 건축가들은 시멘트와 철판을 들고 집을 그림처럼 짓잖아요. 그런데 화가들은 거꾸로 미술관 벽면을 떠나 자꾸 밖으로 떠돌고 있는 겁니다. 건축을 모방한 듯한 거대한 설치물이나 영화를 따라가는 비디오 영상물로 말이죠. 그래서 전 회화의 숨통을 조이는 미술관 사방 벽에 지쳐서 캔버스 밖으로 또는 건물 밖으로 빠져 나왔던 미술을 다시 미술관 안으로 불러들이는 시도를 해보자 싶었죠. 그것도 LCD 같은 전자 기술로 움직이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설치미술이나 사진영상이 아닌 가장 오래된 전통의 평면 벽화로 대결하기로 했죠.

정재숙 미술관 측 반대가 만만치 않았을 텐데요.

이상남 김홍희 경기도미술관장을 만난 자리에서 제가 약속했습니다. 실패했다는 판단이 서면 벽화를 완전히 뜯어내고 벽면을 처음 상태 그대로 되돌려놓겠다고요. 김 관장이 밤잠을 못 주무시는 눈치였어요. 설득해야 할 상대들이 만만찮은 데다 워낙 큰 작업이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밀고 당기며 의논하고 싸우고 보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한 편의 드라마였어요. 한 달에 한 번꼴로 뉴욕에서 날아왔던 것 같아요. 대지 예술을 하는 작가 크리스토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프로젝트의 결과보다는 그 작품을 완성해가는 과정이 더 재미있고 아름답다고요. 그 말을 이번에 실감했어요.

정재숙 미술 동네에서는 이상남의 광기와 김 관장의 결단이 만든 걸작이라고들 하던데요.

이상남 오죽하면 '백남준 할아버지가 와도 힘들 것'이란 말이 나왔겠습니까. 차량 보닛 같은 철판 66개에 자동차용 도료를 칠하고 갈아내고 다시 칠하고 갈아내고 하는 작업을 수십 차례 했어요. 번색을 막기 위해 불에 굽는 범랑 처리만 해도 노동 강도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도 그 66개를 이음새 안 보이게 연결하는 일이 말 그대로 예술이었죠. 오죽하면 제가 '1밀리미터와의 전쟁'이라 불렀겠습니까. 디지털로 제어된 이미지로 보이지만 실은 아날로그 수공예예요. 뉴욕에서 했어도 이 이상은 못했을 겁니다. 한국 기술의 개가라고나 할까. 앞으로 이런 대작을 또 할 수 있다면 우리 장인들을 동원할 겁니다.

돈 문제도 큰 걸림돌이었어요. 미술관이 1억 원, 제가 1억 원을 부담했지만 나머지 1억 원이 모자랐어요. 돈 때문에 이 좋은 작업을 접어야 하나 억울해 악이 받쳐 있는데 친구인 이명세 감독이 사

람 하나를 만나보라는 거예요. 현대미술에 뜻을 두고 있던 (주)커피빈코리아 박상배 대표였어요. 아이들이 '커피빈'을 '콩다방'이라고 부른다는 것도 그때 알았어요. 박 대표가 처음 만난 제게 선뜻 1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씩씩하니까.

지금은 뉴욕 친구들까지 저를 부러워해요. 그렇게 글로벌한 프로젝트를 똑딱 해치운 걸 보고요. 현대미술의 최첨단을 걷는다는 뉴욕이나 런던에서도 이만한 규모의 미술 작업은 요즘같이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는 감히 저지르지 못하거든요. 작가로선 행운이었던 겁니다. 내 예술을 알아주고 안아주는 동료들 덕이죠. 바람이 불 때 영혼을 느끼는 이들, 그런 이들과 나누는 오르가슴이 없다면 예술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재숙 미술관 안쪽 벽면에 설치된 강익중 씨의 벽화 (5만의 창, 미래의 벽)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셨어요.

이상남 강익중 씨는 뉴욕에서 같이 활동하는 동료이자 후배죠. 사실 익중이가 저를 위해 좋은 일을 한 셈이 됐어요. 이미 그런 스케일과 스타일의 벽화가 있었기에 저는 반대편으로 가도 좋았던 겁니다. 처음에는 '저 5만 개 조각 패널이 뿔어내는 에너지를 어찌 이길 것인가' 싶었어요. 물건이 지닌 파워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런 5만 개 그림 앞에 혼자 서니 '이것 참 절묘한 일함을 겨루게 됐구나' 한숨이 나왔죠. 어쨌든 진이 빠져서 몸무게가 몇 킬로는 빠졌을 겁니다. 역시 애들 힘이 무서워요, 하하.

뉴욕의 에너지로 나는 숨 쉰다

정재숙 화가로 살아남는다는 것이 피 튀기게 힘들다는 뉴욕 화단에서 그림으로 먹고살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요.

이상남 난 2등이 좋았어요. 영웅은 아니더라도 내가 거기 있을 이유가 될 내 그림에 대한 잔잔한 논의는 계속 있으니까. 전 항상 뉴욕의 신선한 문화 공기, 생생하게 살아 날뛰는 상상력을 믿어요. 매 순간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해주는 곳, 한 곳에 고여 머물러 있지 못하게 등을 자꾸 밀어주는 곳이죠. 뉴욕의 힘은 에너지+머리예요. 나이로 누르지 않고, 경력으로 남을 밀어내지 않아요. 서열이 없죠. 젊거나 늙거나 노란 얼굴이나 흰 얼굴이나 작품이 좋으면 오케이죠. 쿨하게 자신을 바라볼 수 없으면 바로 무너지는 곳이 뉴욕입니다. 그 팽팽한 긴장이 아마도 절 살게 하고, 노동자처럼 종일 캔버스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겠죠.

'뉴욕식 시간'이란 게 있습니다. 남들이 까놓으면 난 이미 두 발 짝짝 앞서 나가 있어야 하는 것. 보여줄 해답이 안 나오면 예술가

회화의 숨통을 조이는 미술관 사방 벽에 지쳐서 캔버스 밖으로 또는 건물 밖으로 빠져 나왔던 미술을 다시 미술관 안으로 불러들이는 시도를 해보자 싶었죠. 그것도 LCD 같은 전자 기술로 움직이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설치미술이나 사진영상이 아닌 가장 오래된 전통의 평면 벽화로 대결하기로 했죠.

그만둬야죠. 뉴욕 살이 30년이 제게 가르쳐준 건 '네가 가진 나와 다른 걸 보여줘'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정재숙 세계 미술계가 인도, 중국, 한국 등 아시아의 작가들이 지닌 잠재력을 점차 평가하면서 주목하고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

이상남 개인이 꾸면 안 되던 꿈이 여럿이 꾸면 이뤄진다는 걸 믿습니다. 30년 전 제가 뉴욕에 정착할 때는 참 외로웠어요. 근데 이젠 한국이 별로 안 멀게 느껴져요. 잘 숙성시키면 10~20년 내에 세계가 인정할 만한 작가가 나올 것이라 봅니다. 그만큼 한국의 국력이, 경제력이, 문화의 힘이 커진 거죠. 하지만 후배들에게 꼭 하나 일러두고 싶은 게 있어요. 24시간 온몸을 가동시켜 녹슬지 않게 자신을 담금질할 것. 기질, 힘, 기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을 자신을 기를 것. 그렇게 치열하게 애써도 해답이 안 나오면 예술가를 그만둘 것.

정재숙 올해 중등학교 미술 교과서에 작품이 실리게 되셨다면서요. 축하드립니다.

이상남 한국 학생들이 제 그림을 보며 공부할 걸 생각하니 그들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다시 고민하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값싸게 소비되는 이미지 홍수 속에서 단 몇 초도 시선을 못 버티는 삶을 살고 있어요. 현란함과 복잡함과 조잡함에 지친 청소년을 진정한 미감으로 매혹할 수 있는 작품을 많이 남기고 싶어요. 그들의 눈을 단련시켜 아름다움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도록 말이죠.

미래의 아이콘으로서 제 작품은 매우 민주적이거든요. 원, 곡선, 타원, 선이 모두 같은 무게를 지니죠. 원근법이나 미니멀리즘의 절대적 위계질서가 필요하지 않아요. 모든 형태 표현이 다 중요하



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아이들이 시각적으로 즐기며 느껴줬으면 합니다.

백남준 선생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말년에 건강이 안 좋아지시고 작업이 워낙 커지자 조수들에게 맡기는 부분이 늘어났지요. 그걸 보시곤 한탄하듯 '내가 내 손으로 만들 때가 좋았어' 하시더군요. 전 죽을 때까지 이 손으로 갈고, 또 갈며 세상 사람들이 즐겁게 깨물고 씹을 그림을 그릴 겁니다. 난 그걸 디지털화된 아날로그라고 부르죠. ■●

정재숙은 현재 (중앙일보) 문화스포츠 부문 선임기자다. 고려대학교에서 교육학과 철학을 공부했고 1987년 성신여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한겨레신문) 문화부 기자와 주간지 (한겨레21) 문화팀장, (중앙일보) 문화부 기자와 (중앙일보) 일요신문인 (중앙SUNDAY) 문화 담당 에디터 등 일간·주간지의 문화부 기자로 20여 년을 일했다.



입체영상 수원대백과사전

수원은 화성華城과 정조대왕의 도시로 불린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수원 화성은 수원 시민의 자부심이자, 대한민국의 자랑거리다. 그러나 수원 여행길에 화성과 그 관련 유적만 본다면, 수원의 절반만 보고 마는 것이다. 화성을 쌓기 전에도 이미 수원은 경기 남부의 핵심 도시였다. 화성 안의 수원화성박물관이 화성과 정조대왕의 특화 박물관이라면, 수원박물관은 수원의 역사와 선조들 삶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종합 박물관이다.

글 이병학(한겨레 신문) 기자 | 사진 고성홍

수원박물관은 수원역사박물관·한국서예박물관·사운이종학사료관, 이렇게 세 개의 박물관으로 구성돼 있다. 각기 다른 세 분야의 흥미진진한 전시물을 한자리에서 두루 살펴볼 수 있는 박물관 종합선물이다. 수원 각지에 흩어져 있던 선정비·송덕비와 마애불·효자각 등을 모아놓은 야외 전시장도 흥미롭다.

박물관 2층에는 세 박물관으로 가는 통로가 연결돼 있어 관람객들은 편리하게 세 전시관을 관람할 수 있다. 전시실에 들어서면 상시 대기하고 있던 관람 도우미들이 반겨주는데, 이들은 수원의 역사와 박물관 전시물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하고 분석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자원봉사 어르신들이다. 무려 8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관람객을 안내하고 따라다니며 전시물의 내력과 특징을 친절하게 설명한다.

옛날 옛적, 수원에서는...

수원역사박물관은 입구가 흥미롭게 설계되었다. 들어서면 먼저 작은 방에서 한쪽 벽에 투사되는 영상물을 통해 수원의 지리, 특징, 연혁 등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접하게 된다. 1분간 영상물을 감상하

고 나면 그 벽이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문이 생긴다. 그 문이 전시관으로 들어가는 입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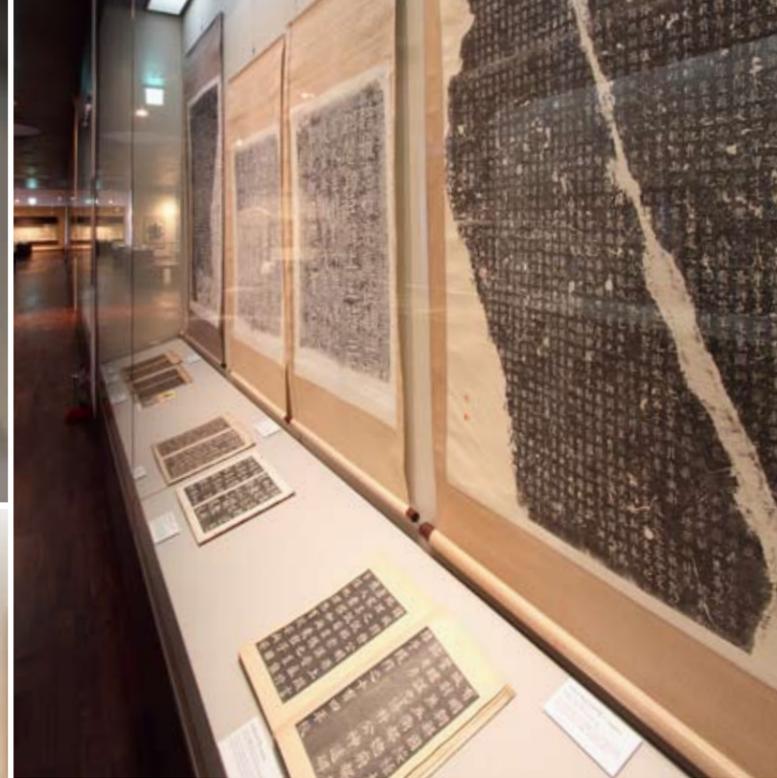
먼저 토기류·창검류 등 수원 지역에서 발굴된 선사시대 유물을 만나고, 팔달문 동종(경기도 유형문화재), 창성사 진각국사 대각원조탑비(보물), 인조반정의 공신 박유명 초상화(보물) 등, 수원에서만 만날 수 있는 전시물들이 본격적으로 이어진다.

선사시대 유물 중에는 빗살무늬 토기와 작은 그릇을 덧대어 만든 작은 독무덤이 눈길을 끈다. 이 독무덤은 삼국시대 것으로 화서동 꽃피에서 발굴됐으며, 1차 매장 뒤 뼈를 추려 다시 묻은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매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이다.

이야기가 있는 전시물로는 고려시대 수원의 효자 최루백과 그의 부인 염경에 관한 유물이 있다. 최루백은 수원 최씨의 시조인 최상적의 아들로, 그가 15살 되던 해 아버지가 호랑이에 잡아먹히자 분노해 호랑이의 발자국을 추적해 끝까지 따라가서 마침내 호랑이를 때려죽인다. 그러곤 배를 갈라 아버지의 뼈와 살을 골라내 정성껏 매장한 후 3년간 시묘살이를 했다고 전해진다. 그의 효행에 대한 일화는 <고려사>와 <삼강행실도>, <오륜행실도> 등 효자 이야

기를 다룬 서책들에 그림과 함께 남아 전해진다. 이야기는 더 이어진다. 최루백은 매우 가난하면서도 어진 성품으로 검소하게 살았다고 한다. 그의 아내 또한 이를 잘 받들어 내조했는데, 아내가 47세의 나이로 먼저 세상을 뜨자 슬픔에 빠진 최루백은, 아내의 묘지명을 직접 짓고 묘지석을 세워 아내에 대한 사랑을 표시한다. 가난한 생활을 말없이 견디며 아버지 제사를 모시고 내조한 아내를 향한 애뜻한 마음을 담은 글로, 이를 새긴 묘지석이 박물관에 전시돼 있다.

수원박물관 한동민 학예팀장이 묘지석에 대해 “고려시대 묘지석이 여럿 남아 있지만, 여성의 이름이 명확하게 적힌 묘지석은 이게 유일합니다. 여기 경애란 이름이 보이죠. 부친을 설명한 대목을 통해 성이 염씨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루백의 부인 이름이 염경애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최루백은 아내가 죽은 뒤에도 검소하게 살았는데, 안타깝게도(혹은 당연하게도) 얼마 안 가 새 부인을 맞아들여 장수를 누렸다고 한다. 한 팀장은 각종 기록을 종합해 계산해보면 최루백이 백 살이 넘게 장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한다.



박물관 이용 안내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문길 443(경기대 후문 쪽 수원외고 옆)
관람 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휴관일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휴관), 1월 1일
입장료	어른 2000원, 어린이·어르신 무료
문의	031-228-4150

씨줄과 날줄로 촘촘하게 엮은 수원의 역사

조선 숙종(1687) 때 만들어진 팔달문 동중에 얹힌 사연도 우여곡절을 지냈다. 본디 고려 문종(1080) 때 개경에서 처음 주조한 뒤 수원 무봉산 만의사로 왔다. 종이 낡으면서 금이 가자, 1687년 이를 녹여 다시 주조해 만의사에 걸었다. 현종 때 만의사 일대가 우암 송시열의 첫 묘지로 결정되면서 만의사는 무봉산 반대쪽으로 터를 옮겨가면서 쇠락의 길을 걸었다. 옮긴 만의사에 걸려 있던 이 만의사 대종은 1796년 화성 축성 때 행궁 앞 종각(현재의 종각 자리)에 걸리게 된다. 일제강점기에 종각이 헐리고 종은 1911년 화성의 남문인 팔달문에 걸려 정오를 알리는 용도로 쓰이게 됐다. 팔달문 동종이란 이름은 이때 붙인 것으로, 종은 2008년 수원박물관이 개관하면서 다시 이곳으로 옮겨졌다.

팔달문 동종 옆 벽에 걸린 박유명 초상화는 17세기의 전형적인 공신 차림새를 보여주는 귀중한 그림이다. 전시된 그림은 모사본이고, 진본(보물 1489호)은 수장고에 보관돼 있다.

임진왜란 때 권율 장군이 승리한 독산성 전투 관련 전시물, 수원 옛 지도를 보고 나면 작은 지폐 한 장에 눈길을 주게 된다. 1909

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1원짜리 종이돈으로, 화성의 북문인 화홍문을 지폐 도안으로 사용했다. 무지개형 수로들 위에 날아갈 듯 세워진 화홍문의 아름다움이 여기서도 빛을 발한다. 화홍문은 지폐 도안에 등장한 국내 최초의 문화재인데, 한일강제합병으로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서호천·오산천·안성천 등 수원 주변의 물길과 수원 우시장이 번성했을 당시 각 지역에서 소를 끌고 오던 이동로, 철길 등을 표시한 대형 지도를 보고 '60년대 수원 만나기' 전시실로 들어선다. 60년대 수원의 거리 모습을 재현해놓은 공간인데, 들어서면 조명이 켜지고 소란스러운 옛 장터의 다양한 효과음이 흘러나온다.

수원양념갈비의 원조인 화춘옥, 수원극장과 함께 수원의 대중문화를 이끌었던 중앙극장, 공중목욕탕, 싸전, 어물전, 대장간 등 옛 가게들이 옛 간판을 달고 늘어서 있고, 안에는 주인, 손님 등 모습의 마네킹을 만들어놓았다. 벽에 나붙은 포스터와 선거 벽보도 재미있다. '취는 살찌고 사람은 굶는다' '취를 잡아 없애자고 쓴 취잡기 운동 포스터, 대통령 후보 이승만, 부통령 후보 리기봉의 선거 벽보, '시간은 생명이다 일초라도 애써 쓰자'는 표어 등을 볼 수

있다. 여기까지가 수원역사박물관이다.

전문 분야의 깊이 있고 귀한 전시물

발길은 자연스럽게 '사운이종학사료관'으로 이어진다. 사운 이종학(1927~2002) 선생은 수원 출신의 서지학자이자 자료 수집가다. 고서점을 운영하며 일제강점기 자료와 유물, 독도 관련 기록 수집에 평생을 바친 분으로, 사료관은 선생의 유족이 수원시에 기증한 2만여 점의 자료 중 일부를 전시한 공간이다.

전시실은 엽서(기증 유물 중 일제강점기 때의 엽서만 7000여 점에 이른다) 수집품, 금강산 수집품, 일제강점기 기록물 수집품 등으로 나뉜다. 조선 중기 명사들의 편지를 모은 간찰첩, 윤경림이 1604년 명나라 사신(동지사)으로 갈 때 친구들이 써준 송별시를 모은 <조친증행록>, 취당 홍순인이 금강산 풍경을 그린 10폭 병풍 등이 볼거리다.

이어지는 한국서예박물관으로 들어서면 술한 역대 명필들이 남긴 방대한 양의 글씨와 그림들이 한꺼번에 다가온다. 지자체 최초로 만들어진 상설 서예 전문 박물관으로, 서예가 근당 양택동

선생이 기증한 서예 작품들을 중심으로 모두 6000여 점의 유물들을 소장하고 있다. 들머리 벽면에 정리된 삼국시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도표를 통해 우리나라 서예의 발자취를 정리하고 들어가게 된다. 고대 암각화에서부터 각종 금석문 탁본, 고금의 명필의 글씨 진본, 조선 역대 임금의 글씨 등을 감상할 수 있다.

수원박물관을 들고 나는 길에 야외전시장의 석물들도 둘러볼 만하다. 들머리에는 주로 조선 후기의 관찰사·부사·유수들을 기려 세운 선정비·송덕비 무리들이 도열해 있다. 동래정씨 약사불, 정려각 등도 볼거리다.

수원박물관 1층 어린이체험관에서는 매일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1000원을 내면 임금님 도장 찍기, 소장 유물 스탬프 찍기, 암각화 탁본 체험, 영조 임금님과 한석봉 글씨 따라 쓰기, 임금님의 교지(임명장) 발급 등을 체험해볼 수 있다.

박물관 2층에는 업무시설도 들어서 있다. 박물관을 둘러본 뒤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2층 학예사 사무실을 찾으면 된다. 수원의 역사와 문화에 자부심을 가진 해박한 학예사들로부터 구체적이고 친절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



자유 의 다리에서, 우리는 ‘회고주의자’가 된다

다리는 분리된 두 세계를 잇는 매개의 공간이다.
오작교와 주몽 신화에 등장하는 가교架橋는 신과 인간, 피안과 차안,
가시적 세계와 비가시적 세계 같은 상반된 것들의 경계와 연결을 의미했으며,
새로운 세계를 연결하는 신천지의 입구를 상징했다.

글 김영직_문학평론가 | 사진 박희주_경기문화재단 경영지원실장

임진각 자유의 다리에 서면, 어느 시인이 “전쟁의 반대는 평화가 아니고 일상이다”(김정환)라고 읊조린 시의 한 구절이 떠오른다. 임진각 자유의 다리에 서면, 이 일상을 음미하려는 우리의 희망을 막고 있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음을 알게 된다. 그것은 종전이 아닌 정전을 선언한 정전협정 문서이다.

1953년 7월 27일 조인된 정전협정 문서 하나로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는 끝나지 않은 전쟁 상태에 있다. 분단은 우리의 일상이 전쟁과 무관하지 않은 상태이고, 전쟁의 위협과 공포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의식의 비상사태임을 의미했다. 불안은 영혼을 잠식하는 법이다. 1953년 포로 교환이 이루어졌던 자유의 다리는 분단과 전쟁을 차례로 겪어야 했던 한반도의 남루하고 가난했던 역사를 표상하는 상징적 구조물이다. 임진각 자유의 다리 앞에서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그 모든 일상은 비일상의 임시 체험이 될 수밖에 없으리라. 우리는 이 자유의 다리 위에서, 독일 시인 B. 브레히트가 <서푼짜리 오페라>에서 “고난과 비참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이 골짜기의 암흑과 흑연을 생각하라”고 했던 내밀한 의미들에 대해서 더 많은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할지도 모른다.

자유 의 다리에서 소통을 고민하다

1953년 휴전 회담 최후의 장애물은 포로 교환 문제였다. 공산군 측은 일대일 맞교환을, 유엔군 측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송환을 주장했다. 이 포로 교환 문제를 둘러싸고 양측은 무려 18개월 11일간 협상을 벌였다. 그리고 마침내 1953년 4월 20일, 최초로 부상 포로 교환이 이루어졌다. 시인 김수영은 1953년 5월 5일에 쓴 미발표시 <조국에 돌아오신 상병포로 동지들에게>라는 시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그것은 자유를 찾기 위해서였다. / (중략) / 자유가 살고 있는 영원한 길을 찾아 / 나와 나의 벗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 현대의 천당을 찾아 나온 것이다.”(제1연)

시인 역시 암흑의 비애를 씹으며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갇혀

25개월 만에 석방된 터라 자유를 갈구하는 심정이 절절히 표현된 점이 눈에 띈다. 그는 거제도 수용소에서의 체험을 1953년에 <나는 이렇게 석방되었다>라는 산문으로 쓴 바 있다.

1953년 8월, 포로 교환이 실제로 이루어진 장소는 판문점이다. 포로를 인수한 것은 유엔군이었다. 한국군이 국군 포로를 인수한 곳은 판문점에서 멀리 떨어진 독재다리였다. 1만 2773명의 송환 포로들이 속옷 차림으로 “자유 만세!”를 외치며 이 다리를 건너면서, ‘자유의 다리’가 되었다. 원래 자유의 다리는 경의선 철교였으나 6·25전쟁 중 파괴되었고, 포로 교환을 위해 84공병 대원들에 의해 나무 다리로 가설되었다. 건축적으로 뛰어난 점은 없으나 포로 교환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 한국전쟁의 대표적인 유산이라 할 수 있다.

다리는 분리된 두 세계를 잇는 매개의 공간이다. 오작교와 주몽 신화에 등장하는 가교架橋는 신과 인간, 피안과 차안, 가시적 세계와 비가시적 세계 같은 상반된 것들의 경계와 연결을 의미했으며, 새로운 세계를 연결하는 신천지의 입구를 상징했다.

그러나 근대의 대표적 구조물인, 제국주의 수탈을 위한 철도를 잇는 철교는 물질문명과 속도를 표상한다. 그곳에서 우리는 전쟁과 일상의 붕괴와 분단을 경험했다. 이제 다리를 잇는, 소통의 다리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할 때다. 엘리엇의 시 <황무지>에서 런던 교의 붕괴를 현대문명의 몰락으로 상징한 것은 다리에 관한 이러한 심상과 무관하지 않을 터이다. 우리의 경우 성수대교 붕괴는 압축 근대화의 어두운 그늘을 생생히 보여주는 실증이지 아니던가.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았다. 이 자유의 다리에서, 분단 한반도의 격절된 시공간을 잇는 ‘소통의 다리’를 어떻게 놓아야 할지 더 많은 상념이 필요한 때다. 남북 영토의 통일을 생각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갈라진 마음의 통합이며, 그 사유의 출발은 ‘통이(統二, 通異)’의 가치들을 재인식하고 새로운 실천을 모색하는 데 있음을 깨닫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는 자유의 다리를 건널 때마다 갑자기 ‘회고주의자’가 되는 순간을 체험해도 좋으리라. ■●

손으로 빚어 마음으로 쓰는 도자

물레 위에서 균형을 잃은 도자와 함께 휘청거리고,
빚은 그릇이 마를 때까지 마음 졸이며 기다리는 과정은 도공이나 수강생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과정은 비슷해도 완성작을 보는 눈은 다르다.
도공은 마음에 들지 않는 도자를 그 자리에서 깨뜨리지만, 우리는 자기가 만든 도자에 한없이
관대해서 찌그러지고 뺨뺨어진 것도 개성이라 여기며 소중히 간직하니까 말이다.

글 김수정_경기문화재단 문화홍보팀 | 사진 고성홍



아이가 흙을 만지더니 마음에 안 드는지 다른 흙으로 바꿔달란다.
흙이 다르면 얼마나 다를까 싶어 만져보니 짐작보다 까끌까끌하다.
청자나 백자처럼 표면이 고운 도자만 생각하다가 한방 얻어맞았다.
매끈한 표면과 부드러운 곡선만 도자의 조형미라 생각했던 탓이다.
이런 흙으로는 관상용 도자가 아니라 막사발 같은 투박한 그릇을 만들어야 제격일 것 같다.
도자를 잘 모르긴 해도 그런 느낌이 들었다.

도자는 그 자체로 자연이다

용인 지앤아트스페이스(이하 지앤)에서 도자 강의를 하고 있는 박선정 씨가 흙의 질감에 대해 설명한다.
도자를 만드는 흙은 무수히 많은데, 우리가 만든 흙에는 모래가 섞여 있어 '찰흙'처럼 매끄럽지 않았던 것이다.
지앤에서 쓰는 흙만 해도 굵디고운 부드러운 흙부터 거칠거칠한 흙까지 이십여 종류나 된다.
흰색에 가까운 것도 있고, 검은빛이 나는 것도 있다.
흙의 종류가 이렇게 많다보니,

취향에 따라 선호하는 흙도 다르다.
아이들은 대체로 손으로 주무를 때 매끄럽고 부드러운 흙을 좋아한다.
흙은 모두 경기도 이천과 여주에서, 도예가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구해온 것이다.

성형 작업을 능숙하게 하는 세연이는 오빠와 함께 5개월째 지앤에서 도자를 배우고 있다.
뜨내기 일일 체험객이 보기에는 부러울 정도로 아무진 손놀림이다.
흙의 감촉을 느끼면서 흙의 수분을 조절해낸다.
오랫동안 주물럭거린 흙이 딱딱해지면 스펀지에 알맞게 물을 적서 수분을 보충한다.
퍽퍽한 흙도, 질퍽한 흙도 좋은 도자가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세연이는 수박 모양의 화분을 만들기 위해 밑대로 흙을 밀고, 평평하게 밀어낸 흙을 잘라 모양을 만든다.

“수박을 먹고 나서, 씨를 심으면 수박이 나는 거죠?”

세연이는 수박 모양 화분에 무엇을 심을지 결심이 선 모양이다.
올여름 세연이네 베란다에는 수박 모양의 화분에 수박이 자라나겠다.



도자의 미학은 힘의 균형에서 만들어진다

화분을 만들고 있는 세연이를 뒤로하고, 물레 곁으로 다가갔다. 힘차게 돌아가는 물레에 나도 모르게 눈길이 쏠렸다. 물레 판의 회전 속도는 선뜻 손을 내밀어 만져보기 겁날 만큼 빨랐다. 빠른 속도 탓에 균형이 조금만 흐트러져도 원형의 모양이 찌그러졌다. 호흡을 다시 가다듬고 균형을 맞춰 찌그러진 곳을 조심스럽게 매만지는 손길을 가만히 지켜봤다. 돌아가는 물레에서 조금씩 그릇의 형태가 만들어졌다. 평균대 위에 선 것처럼 아슬아슬한 균형 맞추기가 계속됐다. 보는 사람도 긴장이 돼 몸이 저절로 움츠러들었다.

“끝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물레가 멈출 때까지 집중하지

않으면 모양이 흐트러져요.”

물레를 돌리기 위해서는 먼저 흙기둥을 세워야 하는데, 대학에서는 그 기둥 세우는 작업만 일년 과정이라니, 만만한 취미로 삼기에는 생각보다 ‘빡센’ 노력이 필요하다. 지앤에서는 선생님이 미리 준비해놓은 기둥으로 물레를 돌려 그릇 형태로 만드는 연습을 한다. 물레를 돌리는 과정도 쉽지 않아서 일대일 강습을 받으면서 작업해야 한다. 어린이의 경우 물레를 돌리다 몸이 함께 돌아갈 위험도 있어 반드시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세진이의 물레질을 힐끔거리며 쳐다보던 세연이가 선생님 눈치를 보며 발판을 살짝 눌러본다. 갑자기 휘몰아치듯 물레 판이 돌아가니 세진이도 깜짝



않으면 모양이 흐트러져요.”

물레가 멈추자 긴장했던 세진이의 어깨가 갑자기 풀썩 내려앉았다. 적절한 긴장이야말로 도자의 형식미를 결정하는 요소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멋진 형태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도 집중을 하지 않으면 원하는 형태의 도자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세진이는 열 살 아이답지 않은 집중력을 보여주었다. 완성된 그릇의 형태도 그렇고, 과정에서도 그랬다. 세진이를 가르치는 박선정 씨도 세진이의 집중력을 높이 평가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한 시간 정도만 지나면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일쑤여서 어린이 프로그램은 한 시간 안팎으로 편성하는데 세진이는 그보다 오랜 시간 수업을 하고 있었다.

놀라서 세연이를 쳐다본다. 세진이가 완전히 찌그러진 도자를 건어내고 물레를 다시 돌리기 시작한다. 다시 집중을 하고, 힘을 모은다. 세진이가 원하는 그릇은 어떤 형태일까. 완성작이 나오길 기다리다 유약을 입히는 작업에 한눈이 팔렸다.

도자는 시간의 응고로 완성된다

성형을 마친 도자는 일주일 정도 건조시킨 후 유약을 입힌다. 유약도 흙의 종류만큼이나 다양하다. 오늘 작업하는 유약은 흰색과 붉은색 두 종류다. 아무 색깔도 없는 도자에 붉은색 유약을 발라 색을 입히고, 채색을 마친 도자는 투명한 빛깔을 더하기 위해 흰색 유약을 바른단. 도자에 바른 유약은 일부가 채 지나지 않아 마른

다. 마르기 전에 재빨리 바닥에 묻은 유약을 닦아내지 않으면 구울 때 가마에 유약이 늘어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 과정을 체험하지 못해 섭섭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성형이 끝나면 말리고, 초벌하고, 유약을 바르고, 재벌해서 완성하는 데 보통 3~4주가 걸려요. 첫째도 시간 싸움이고, 둘째도 기술을 쌓아야 하는 시간 싸움이에요.”

1일 수강생이 만든 도자는 지앤에서 마무리한다.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긴 힘들어도, 신경을 쓰면 구경할 수 있다. 가마에 불을 지피는 날이나, 오늘처럼 유약을 입히는 날 방문하면 선생님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다. 단숨에 딱딱 만들어지는 것이라든 어떻게 천년을 가졌는가.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작업

과정과 시간을 더 단축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분초를 다투는 경주가 아니라, 마음을 비우고 기다려야 하는 예술이기 때문이다. 체험 후 한 달이 지나면, 완성된 도자를 집에서 택배로 받아볼 수 있지만, 직접 방문해서 찾아가는 것도 좋을 듯하다. 도자 만들기에 급급해서 제대로 보지 못했던 지앤의 다른 매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앤에서는 도자 만들기 외에도 즐길 거리가 많다. 전시 관람, 전문가가 만든 도자를 구경하거나 사기, 바깥의 풍광이 고스란히 들어오는 인테리어의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기... 봄별이 좋은 날 방문하면 토분에 담긴 식물을 구경하면서 마음에 드는 녀석은 집으로 데려갈 수도 있으니 꽃샘추위가 물러가고 봄빛이 완연해지면, 한번 찾아가보길 권한다. ■●



지앤아트스페이스 교육프로그램

●어린이 정규 프로그램

5~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며, 작품 구상에서부터 평면 및 입체 작업, 전시까지 작품 활동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어린이 작가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매년 2회(1월, 7월) 지앤 이벤트 홀에서는 50여 명의 어린이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어린이 도예조형 프로그램

5~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며, 4주 동안 매주 다른 주제로 조형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가족 얼굴 표현하기, 나의 집 건축하기 같은 개성적인 작품에서부터 액자나 화병, 모빌 같은 실용적인 작품까지 모두 만들어볼 수 있다. 완성된 작품은 어린이 정규 프로그램과 함께 이벤트 홀에서 전시한다.

●성인 아카데미 도예교실

초급반, 중급반, 물레반, 특강반(도자 인테리어). 4개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예 기초 이론부터 시작해 물레와 인테리어까지 배운다. 실용성을 염두에 둔 도예교실이다.

●일일 도예체험 프로그램

간단한 생활 소품을 만들 수 있는 도자기 제작, 초벌 도자기에 채색하는 핸드 페이팅, 선생님과 함께 물레작업을 체험해보고 표면을 장식하는 물레체험 등 다양한 일일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짧은 시간이지만 도자의 매력을 흠뻑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한다. www.zienart.com





꽃,

봄이 보낸 연애편지

봄은 남쪽에서 온다. 맞다. 그러나 봄은 남쪽에서만 오는 게 아니다.
봄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부터도 온다.
나뭇가지에 연둣빛 새순만 올라와도 마음 설레며 봄꽃을 기다리기 시작하는 당신을 위해,
서둘러 불러 모은 경기도의 봄꽃 여행지들이다. 봄 마중 나가자.

글 | 사진 김산환_여행작가

10여 년 전 겨울, 눈 쌓인 포천 국망봉을 오른 적이 있다. 다리굽을 하기 위해 양지바른 바위 턱에 기대어 쉴 때였다. 노란 꽃망울이, 쌓인 눈을 힘겹게 이고 있는 게 보였다. 꽃망울을 누르고 있던 눈을 조심스럽게 치워 주자 탐스러운 노란 꽃송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복수초였다. 겨울의 한복판에서 피워내는 생명의 향연이라니. 그것은 겨울에 대한 생명의 '찬란한 복수'였다. 봄은 겨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이미 잉태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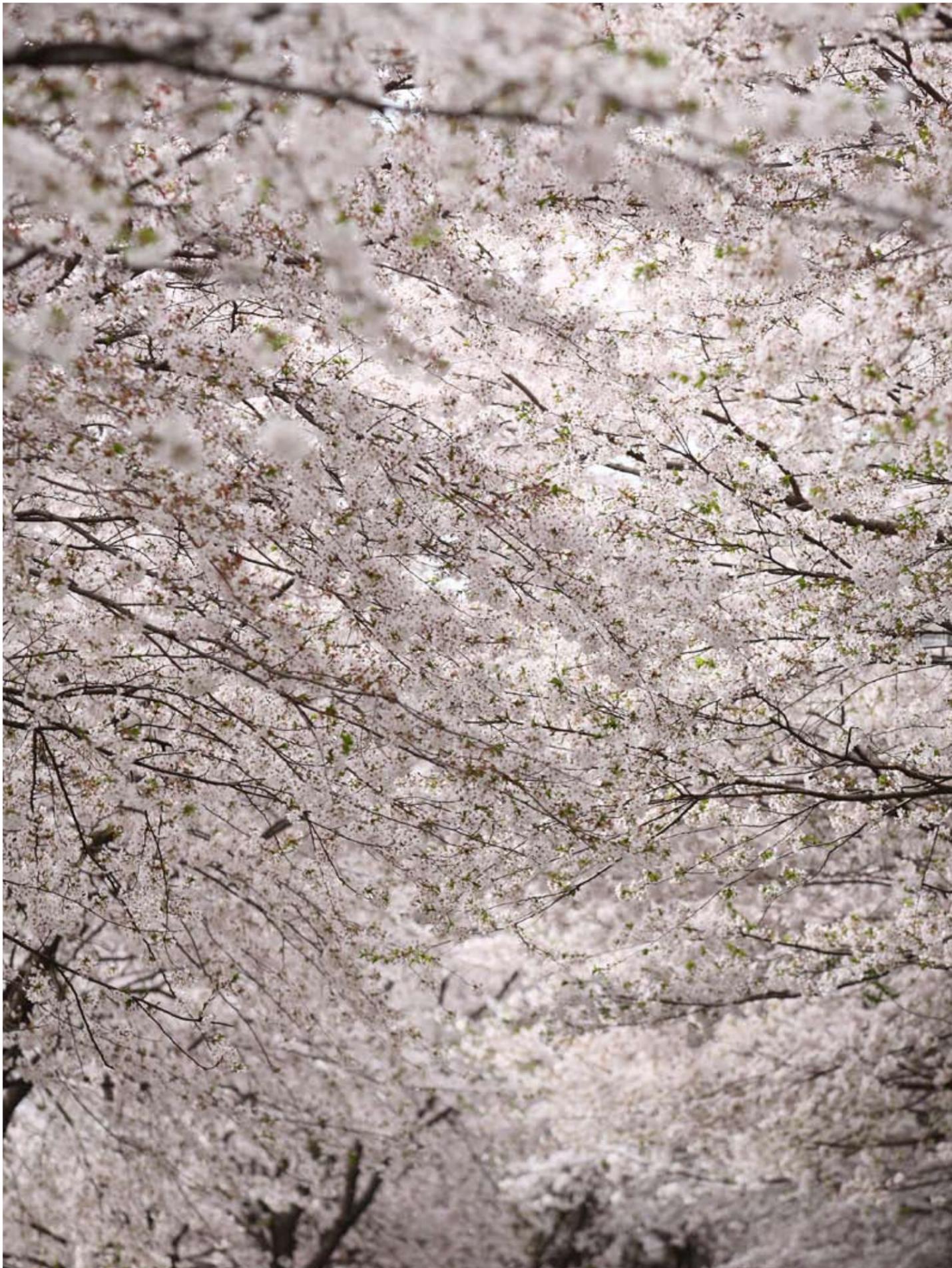
이천 산수유 마을에 봄의 전령사 노란 산수유꽃이 활짝 피어났다.

청초하다, 산수유꽃

곰곰이 뜯어보면 봄 마중 간다고 남도만 찾을 일도 아니다. 한반도 중심에 자리한 경기도에서도 생명은 계절의 수레바퀴를 멈추지 돌리며 봄을 노래하고 있다. 그것들은 내가 사는 곳과 너무 가까워서, 혹은 봄은 남쪽부터 온다는 명제에 휩쓸려서 관심 밖의 일이 되고 있을 뿐이다. 경기도의 봄꽃은 어느 곳에서 시작하는 걸까? 남도는 동백과 매화가 봄꽃의 시작을 알린다. 그러나 경기도는 산수유가 첫 번째 타자다. 3월 중순 이면 이천 산수유 마을은 노란 산수유꽃으로 꽃 대궐을 차린다. 전남 구례군 산동면의 산수유에 비하면 보름쯤 늦다. 그러나 이천에 산수유꽃이 만발하는 이때가 봄기운도 무르익어 봄나들이로는 제철이다.

이천 산수유 마을은 백사면 도림리, 송말리, 경사리 일대다. 원적산(634미터) 자락에 자리한 이 마을들에는 산수유 8000여 그루가 자생하고 있다. 수령 100년을 헤아리는 만만치 않은 나무들이다. 이곳 산수유의 역사는 400년 전인 조선 중종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조광조를 따르던 엄용순이라는 선비가 기묘 사회를 피해 이곳으로 낙향했다. 그를 따르던 제자 다섯도 함께 왔는데, 그들은 이곳에 육괴정이란 정자를 짓고 주변에 산수유를 심었다. 그 산수유가 자라면서 가지를 뻗어나가 오늘에 이른 것이다.

산수유는 화려하지 않다. 나뭇가지마다 셋노란 꽃망울을 터트리지만 결코 혼자서는 빛나지 않는다. 꽃



망울 여럿이 어울리고, 그런 나무들이 함께 균락을 이뤄야만 비로소 꽃으로 인정받는다. 산수유가 만발하면 마을은 파스텔 톤으로 물든다. 여기에 아지랑이까지 더해지면 봄은 한결 무르익은 느낌이다.

마음까지 흐드러진다, 벚꽃

산수유가 길어 올린 봄의 바통은 벚꽃이 이어받는다. 이 땅에 벚꽃 명소는 많다. 경남 남해나 지리산 쌍계사, 경주 보문호, 전주에서 군산으로 이어지는 군산가도, 여의도 윤중로, 벚꽃축제를 벌이는 곳은 넘쳐난다.

여기에 경기도도 빠지지 않는다. 관심을 조금만 기울이면 지척에서 만발한 벚꽃을 볼 수 있다. 벚꽃은 화려하다. 벚꽃이 피면 수만 개의 등불을 켜놓은 것처럼 화사해서, 밤이 환해질 정도다. 봄별이 좋을 때는 벚꽃이 마치 팝콘 터지듯이 꽃잎이 벌어지는 게 보일 정도다. 여기에 도심의 벚꽃 터널은 어둠이 찾아오면 화려하게 변신한다. 빨강과 파랑, 노랑 등 원색의 조명을 받아 색동옷으로 갈아입는다. 벚꽃이 질 때는 또 어떤가. 벚꽃 터널 속으로 꽃비가 내린다. 펄펄 쏟아지는 함박눈처럼 꽃잎이 낙화한다. 꽃이 진 자리마다 하얀 명주 천을 펼쳐놓은 것처럼 꽃잎이 쌓인다. 그것은 봄의 비상이다. 초봄의 외피를 벗고, 봄의 만개를 알리는 봄의 우화(羽化)다.

달콤하다, 복숭아꽃과 배꽃

벚꽃이 지고 난 뒤에도 경기도의 봄노래는 끝나지 않는다. 꽃은 사람의 마을로 한 걸음 더 걸어 들어간다. 야트막한 산자락에서는 진달래가 붉은 꽃망울을 터트린다. 초록빛이 제법 돌기 시작한 들판에는 샛노란 민들레가 영토를 넓혀간다. 무명옷처럼 수수한 냉이꽃도 논두렁, 밭두렁을 따라 피어난다.

관심을 조금만 기울이면 지척에서 만발한 벚꽃을 볼 수 있다. 봄별이 좋을 때는 벚꽃이 마치 팝콘 터지듯이 꽃잎이 벌어지는 게 보일 정도다.(왼쪽)
명주처럼 수수한 꽃망울을 활짝 터트린 배나무가 옆으로 가지를 뻗어 꽃터널을 만들었다.



봄바람에 민들레 홀씨가 흩날릴 때면 여주와 이천의 구릉진 과수원도 꽃물결을 이룬다. 수줍어 불이 발장게 물든 새색시 같은 복사꽃과 천사의 날개처럼 눈부시게 하얀 배꽃. 한창 물오른 나뭇가지가 하늘로 치솟고, 옆으로 뻗어가 이웃한 나무와 어깨동무를 하며 이루는 꽃물결은 과수원을 거닐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든다. 복숭아와 배나무, 예전에는 달디단 과일이 열리는 나무로만 취급 받았다. 그러나 봄꽃을 즐길 줄 아는 이들에게 이 나무들은 그저 과일나무가 아니다. 봄의 향기가 물씬한 ‘꽃나무’다. 과수원을 따라 거닐거나 한적한 시골마을로 드는 농로를 찾아 가만히 거닐면 봄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찾아온다. 복숭아꽃은 이천 장호원을 풍계리, 배꽃은 울면 석산리 부래미 마을을 찾아간다.

화려하고 다채롭다, 식물원의 봄꽃

봄꽃은 산과 들에만 피는 것이 아니다. 긴 겨울잠을 자던 수목원도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면 분주해진다. 봄에 꽃을 틔우는 꽃들로 한껏 치장을 하고 손님맞이에 나선다.

여주 해어림식물원(www.haeyeorim.com, 031-882-1700)은 2006년 한국교육산업대상에서 현장학습 부문 대상을 수상한 식물원이다. 식물원 전체 면적은 16만 5000m². 식물원은 여름이면 연꽃이 만발하는 천연지를 시작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넓어진다. 해어림은 아동 출판의 외길을 걸어온 도서출판 예림당의 나춘호 회장이 사재를 털어 만들었다. 2005년 개장했으며 초본류·목본류·양지식물·음지식물·기생식물 등 생태 특성에 따라 3200여 종의 식물을 식재했다. 식물원을 따라 거닐다 보면 어느새 전망 좋은 언덕에 올라서게 되고, 이곳에서 내려다보는 식물원의 전경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특히, 이 식물원은 동화를 테마로 한 인형들을 곳곳에 조성해 아이들의 사랑을 독차지한다.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뫼난이 돼지삼형제’ 등이 그 주인공이다. 찾는 이가 뜬한 보람의 동산 산림욕장은 연인들의 은밀한 데이트 코스다.

포천 허브아일랜드(www.herbisland.co.kr, 031-535-6498)는 허브를 테마로 한 식물원이다. 식물원에는 동화 속 마을처럼 꾸며진 건물들이 오밀조밀 들어섰다. 각각의 건물은 드라이플라워로 장식됐다. 허브 향이 그리운 이들이 먼저 찾아가는 곳은 온실. 대형 온실에 들어서는 순간 향긋한 허브 향에 정신이 아찔하다. 엘더블가든은 허브아일랜드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 허브에 관한 옛 이야기를 그려 넣은 벽화가 있고, 약용·식용 등으로 사용되는 허브가 자라고 있다. 정원 가운데 벤치와 인공 폭포가 있는 이니스



프리 정원은 허브 향을 맡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

허브아일랜드는 체험거리가 많다. 공방에서는 향초·비누·토피어리 등 허브를 이용한 나만의 공예품을 만들어볼 수 있다. 허브 향 가게에서는 4000여 종에 이르는 허브 생활용품을 팔고 있다. 또 이곳에서는 허브를 이용한 빵과 차, 요리 등도 맛볼 수 있다. 허브아일랜드의 펜션도 명성이 자자하다. 이곳에는 라벤더·오렌지·페퍼민트·장미 등 4가지 타입의 방이 있다. 월풀 욕조에서 허브를 이용해서 입욕을 즐길 수 있고, 매트와 베개에서 풍기는 라벤더 향기에 취해 하룻밤을 보낼 수 있다.

용인 한택식물원(www.hantaek.co.kr, 031-333-3558)은 자생식물 2400종, 외래종 5900종 등 총 8300여 종 730만 본이 식재된 국내 최대 규모 식물원이다. 1979년 설립되어 30여 년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수목원을 연상시킬 만큼 숲이 깊다.

한택식물원에는 34개 테마의 정원이 있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곳은 다양한 주제의 온실이다. 특히, 호주온실에 있는 바오밥나무 세 그루가 관람객의 사랑을 독차지한다. 국내 식물원 가운데 바오밥나무가 전시된 것은 이곳이 유일하다. 나무가 불병처럼 불룩해 ‘불병나무’로도 불리는 바오밥나무는 생택퀴페리의 소설 ‘어린 왕자’에도 등장한다. 또 남아프리카온실은 세계 최대 식물군을 보유한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의 식물과 나미비아 사막의 나무 알로에 등이 전시됐다.

포천 뷰식물원(www.viewgarden.co.kr, 031-534-1136)은 국내 최초로 양귀비 축제가 열렸던 곳이다. 5~6월이면 새빨간 양귀비가 수목원을 수놓는다. 4000평 규모의 양귀비 밭은 여름이면 후룩스와 버베나와 같은 여름 꽃, 가을에는 국화 세상으로 변신한다. 인공적인 분위기가 나는 여는 식물원과 달리 자연농장을 찾은 것처럼 편안한 것도 이 식물원만의 장점이다. ■●

1.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동화를 테마로 만든 해어림식물원의 토피어리.
2. 허브아일랜드를 찾은 관람객들이 아이리스정원을 돌아보고 있다.
3.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한택식물원에서만 볼 수 있는 바오밥나무.
4. 뷰식물원은 자연미를 살린 수목원으로 농장을 찾은 것처럼 푸근하다.

여기가 경기도 최고의 벚꽃 명소다!

- 수원 경기도청 벚꽃동산 팔달산 자락 40년생 벚나무 200여 그루의 꽃이 만발하면 축제도 열린다. 경기도 콜센터 www.120.gg.go.kr | 031-120
- 부천 도당 근린공원 길이 1.8킬로미터의 진입로에 30년생 벚나무 2000여 그루가 늘어서 있다. 밤에는 여섯 가지 빛의 조명이 있어 더욱 즐겁다. 도당동 주민자치위원회 032-650-2610
- 용인 호암미술관 왕벚나무와 수양벚나무 등 토종 벚나무 200여 그루가 내뿜는 운치가 장관이다. 미술관으로 가는 에버랜드 진입로도 벚꽃 하면 빠지지 않는 곳.
호암미술관 <http://hoam.samsungfoundation.org> | 031-320-1801
- 광주 남한산성 벚꽃길 1997년부터 광주시가 조성한 벚꽃길이다. 산벚나무 3000그루가 남한산성을 관통하는 337번 지방도를 따라 심어졌다. 남한산성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www.namhansansung.or.kr | 031-743-6610
- 수원 농촌진흥청 가로수길 30~50년 된 왕벚나무길이다. 만고풍상 다 겪은 고목에서 틔우는 꽃이라 운치가 더하다.
농촌진흥청 www.rda.go.kr | 031-299-2200
- 안산 적금길 벚꽃거리 고잔동 세무서 앞 사거리에서 삼일로 삼거리까지 1.5킬로미터에 조성된 벚꽃길이다. 해마다 벚꽃 만개 시기에 맞춰 축제가 열린다. 고잔1동 주민센터 031-481-6602



바늘과 걸었네, 소풍 같은 인생길

‘가장 좋았던 시절’로 그는 50대를 꼽는다.
 실과 바늘만 손에 쥐고 있어도 세상이 온통 내 것처럼 느껴지던 무렵,
 마흔 즈음에 장인의 길에 들어선 그는 자수의 참맛을 알게 된 그 시절이 진정한 ‘청춘’이었다고 믿는다.
 그때가 가끔 그립지만 지금도 썩 괜찮다고 생각한다.
 세상이 온통 내 것 같진 않지만, 세상이 아름답다는 느낌은 점점 커지기 때문이다.
 키 작은 들꽃에도 불품없는 골동품에도 자꾸 마음을 빼앗긴다.
 나이 팔십에 그는 여전히 청춘이다.

글 박미경, 자유기고가 | 사진 이한구



이번에도 어김없다. 봄의 발소리가 가까워오니 그는 또 버릇처럼 가슴이 뛰다. 그게 다 꽃 때문이다. 한평생 꽃을 수놓으며 살아오 고도, 앞다투어 터뜨리는 꽃망울들 앞에서 그의 가슴은 늘 처음 처럼 출렁인다. 그럴 수밖에 없다. 같은 나무라도 작년에 핀 꽃과 올해 핀 꽃이 다르고, 같은 꽃이라도 지난해에 찾아온 나비와 이번 해에 날아오는 나비가 다르기 때문이다. 늘 그랬듯, 팔십 번째 맞는 이번 봄도 그에게는 다시 ‘첫봄’이다.

“들꽃이 제일 좋아요. 이름도 잘 모르겠고 눈에도 잘 띄지 않는, 그런 꽃에 점점 마음이 가요.”

정성의 예술, 정직의 예술

들꽃이 피어나는 새봄에, 그는 일본 <산케이신문>의 초대로 전시회를 연다. 한국 전통 자수계의 원로로, 한일여성친선협회 이사로,

그간에도 종종 일본에서 초대전을 마련해온 터. 기계 자수에 밀려 손 자수의 맥이 거의 끊어진 일본에서, 우리 손 자수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뽐낼 예정이다.

“세계 어디를 가 봐도 우리 것처럼 정성을 들인 자수가 없어요. 문양의 바깥선만 자수로 표현하는 어느 나라들과 달리 우리의 전통 자수는 바깥선 안쪽까지도 수를 놓아 꼼꼼히 매우니까요. 꽃 한 송이를 탄생시키려 해도 수백 땀의 수를 놓아야 하니, ‘정성의 예술’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활옷, 병풍, 의걸이장, 반단이, 책장, 약장, 예물함, 거울, 안경통, 수저집... 의복과 가구, 생활소품을 두루 장식하는 그의 자수는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와서 물건의 본래 기능을 곧잘 잃는다. 얼굴을 비춰야 할 손거울은 뒷면의 자수가 하도 예뻐 뒤돌아 있기 예사고, 약을 넣어둬야 할 약장도 책을 꽂아둬야 할 책장도 약이

나 책 없이 그저 '작품'으로 여겨지기 일쑤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옮겨놓은 것들 외에도 그의 자수 가운데는 '민화'를 연상시키는 해학적 작품이 많다. 개구쟁이 꼬마도, 부지런쟁이 농부도, 그의 작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얼굴들. 그의 자수를 보고 있노라면, '있고 있던' 그리운 얼굴들이 불현듯 떠오른다.

“반드시 자연 염료로 염색한 실을 써요. 화학 염료로 물들인 실은 자연 그대로의 빛을 담아내지 못하더라고요. 번번이 느끼지만 색이란 게 참 놀라워요. 같은 분홍인 것 같아도 지난번에 물들인 실과 이번엔 물들인 실의 빛이 다르거든요. 세상에는 연분홍이나 진분홍 따위의 말로는 표현되지 않는 묘묘한 분홍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갈수록 색이 어렵고, 그럴수록 색에 끌려요.”

염색된 실은 꼬아서 쓴다. 한 올 한 올의 실을 수십 번씩 꼬아 '끈사'로 만들고 나면, 정성들여 그린 밑그림에 한 땀 한 땀 수를 놓는 일이 그를 기다린다. 바늘이 움직인 꼭 그만큼 정직하게 표현되는 작업. 들성들성 건너떨 수도 성큼성큼 질러갈 수도 없는 자수의 뜰에서, 장인은 그저 꼼짝없이 앉아 흔들림 없이 수를 놓을 뿐이다.

“몇 년 전에 만든 대야장은 반년 걸려 완성했고, 최근에 만든 상감 예물함은 꼬박 일년이 지난 뒤에야 끝낼 수 있었어요. 신기한 건, 작업을 하는 동안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수를 놓을 때는 거의 무아지경의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거의 느끼지 못해요.”

그는 나이에 비해 지나치게 '젊은' 얼굴을 갖고 있다. 시간의 흐름을 못느낄 정도로 무언가에 몰입하면, 그에게 그랬듯 세월이 우리의 걸도 살짝 비껴갈지 모른다.

고통에서 피어난 꽃, 자수

자수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마산에서 여학교를 다니던 시절이었다. 그때만 해도 자수는 학교에서 가르치던 정규 교과목의 하나였다. 그의 재능을 알아본 교장선생님의 추천으로 자수장 김난초 선생과 인연이 닿았지만, 본격적인 자수 인생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재능을 발견한 게 갈래머리 소녀 시절이었다면,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쪽머리 새댁 시절이었다. 어린 시절을 일본에서 보낸 그는 전통 옛집의 '표본' 같은 시력이 참 좋았다. 감나무가 심어진 마당이, 뉘주가 놓인 대청마루가, 장독들이 반짝이는 뒤꼍이 갖 들어온 그 집을 고향처럼 느끼게 해줬다.

“문에 달린 고리 하나, 장식장에 달린 열쇠 하나도 참 멋져 보이더라고요. 옛것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면서, 틈 날 때마다 골동품을 하나둘 모으기 시작했어요. 값나가는 유물보다 수를 놓은 천 조각 같은 것에 더 마음이 끌렸던 걸 보면 다시 자수를 할 운명이긴 했던가 봐요.”

마흔을 코앞에 두고 그와 자수의 인연은 다시 시작됐다. 옛것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을 뿐 그때까지 그는 그저 평범한 주부였다. 어느 날 택시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가 났고, 평온하던 그의 일상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사흘 만에 깨어난 병실에서, 택시운전사가 현장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고를 전후한 기억은 하얗게 지워졌고, 혼자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과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 그 자리를 대신 채웠다. 보름 만에 퇴원하고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마음을 치유해줄 무언가가 간절히 필요했다.

“그때 자수가 생각났어요. 수를 놓는 일은 생각을 비우는 일과 같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자수를 하고 나서 거짓말처럼 마음이 편해졌어요. 고통을 잊기 위해 시작한 일이 언젠가부터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돼버렸죠.”

제법 많은 작품이 쌓였을 때 지인들은 그에게 전시를 권했다. 하지만 그는 전시회를 여는 대신 동아공예대전에 두 작품을 출품했다. 심사 결과는 놀라웠다. 한 작품은 대상이었고, 한 작품은 입선이었다. 예상치 못한 수상과 함께 그의 발걸음에도 힘이 생겼다. 자수는 더 이상 고통을 잊게 해주는 '취미'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예술'이었다.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소명도 커졌다. 전해 내려오는 자수의 기법은 물론 옛 여인들의 규방문화를 연구하고, 제자들을 불러 모아 스러져가는 전통 자수의 맥을 잇게 했다.

세상 모든 여인이 자수의 매력에 빠지는 그날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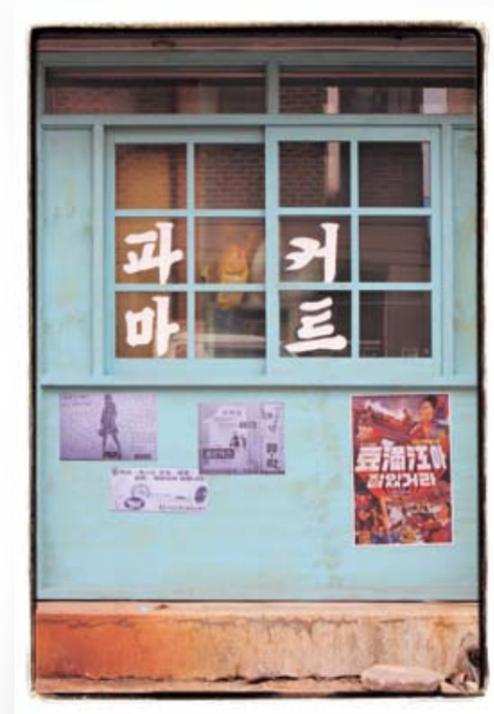
큰머느리 임희영 씨는 그의 든든한 제자 가운데 하나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결혼 이후 전통 자수의 맥을 잇고 있는 희영 씨는 이제 같은 길을 걷는 제자를 넘어 '같은 꿈'을 꾸는 동반자가 되어 있다. 오래도록 품어온 고부(高婦)의 꿈이 빠르면 올해 안에 현실이 된다. 경기도 구리에 들어서게 될 '여인 박물관'. 두 사람의 작품을 비롯한 전통 자수 수천 점과 그가 수십 년간 모아온 전통 유물들이 이곳에 전시된다.

“박물관 안에 문화센터를 뒀서, 평범한 주부들에게 수놓는 즐거움을 알려줄 생각이예요. 마음이 아픈 사람은 자수를 통해 마음을 치유했으면 좋겠고, 삶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자수를 통해 작품을 완성했을 때의 성취감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박물관 이름이 처음엔 규방문화박물관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이름을 어려워해서 여인박물관으로 이름을 바꿨죠. 자수의 대중화를 목표로 하면서 이름이 어려워선 안 되잖아요.”

아무래도 나부터 '포섭'하려는 모양이다. 곱디고운 실 꾸러미에서 진분홍빛 실 하나를 골라낸 그가 탐스러운 모란꽃을 한 땀 한 땀 수놓기 시작한다. 그새 몰입된 걸까. 나도 해보고 싶다고 말하려는데, 곁에 누가 있는지를 그는 벌써 잊은 얼굴이다. '시범'을 보이다 말고 모란 핀 정원으로 날아간 사람. 바늘 타고 소풍 간 그는 대체 언제 돌아오려는 걸까. ■●



화양연화, 그 아름답던 시절을 그리다



누구에게나 전성기는 있다. 마찬가지로 쇠퇴기도 있다.
 이것이 세상사의 야속한 이치다. 주민들은 사람 가득했던 오래전 안성을 그리워한다.
 그리고 이미 그 시대가 저물었음을 알고 있다.
 대장간 주인은 자기 대에서 이 일이 끝날 것임을 알고 있다.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은 옛 천변마을 사람들뿐만이 아니다.
 안성에 사는 많은 이들에게 그 시절은 그리움이다.
 그래서 그리움을 그린다. 다시 빛날 기회를 꿈꾸며.

글 김대홍, 자유기고가 | 사진 고성홍

소설 <허생전>에는 허생이 과일을 매점하여 크게 이득을 보는 대목이 나온다. 이곳 과일을 매점하자 한양 과일값이 열 배 뛰는데, 이곳이 바로 안성장이다. 물건이 모이니 돈이 모이고, 돈이 모이니 사람이 모였다. 돈과 사람이 모이니 자연히 동네가 흥청거렸다. 남사당놀이가 안성에서 번성한 것도 그런 이치다. 서울 양반댁에서는 안성 유기를 주문해서 썼다. 양반댁이 주문한 것이니 당연히 쌀을 담은 그릇이었고, 보리나 다른 잡곡을 담은 그릇에 비해 아담하고 예뻐다. 안성맛춤이란 말은 여기서 나왔다. 조선의 물화가 모이던 큰 시장은 지금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 여전히 남아 있을까. 그곳으로 떠난다.

이런 게 동네 냄새지

지금은 작은 개천이지만 꽤 오랫동안 안성천에는 배가 다녔다. 서해에서 고기를 잡은 배들이 안성천을 거슬러 평택의 항곶진(坑串津)까지 올라갔다. 여기서 내려진 어물들이 안성장을 거쳐 경기도와 한양으로 올라갔다.

육상 교통이 발달하면서 강과 천을 이용한 교통은 쇠락했다. 1973년 아산방조제가 생기면서 안성천을 이용한 교통은 완전히 사라졌다. 과거 안성장이라는 성남동, 옥천동, 신흥동은 행정상의 이름으로는 안성 1동이고, 개천 옆에 있어서 천변마을이라 불리기도 한다. 안성장이라는 안성의 대표 마을로 불리던 것은 이미 추억이 되었다.

한때 안성의 중심이었던 동네는 도시가 커지면서 번두리로 바뀌었다. 조용히 쇠락해가던 동네는 2007년 안성시가 지역 대표 축제인 바우덕이축제를 안성천으로 옮기면서 다시 눈길을 끌게 됐다. 축제가 열리면 수많은 사람이 몰리는데, 스러져가는 동네 모습은 축제와 어울리지 않았다. 2008년 벽화 사업은 그렇게 시작했다.

안성천을 가로지르는 다리 가운데 안성교가 있다. 안성교를 건

너 안성으로 들어서는 입구가 바로 과거 안성장이라는 서던 곳이자, 안성에서 가장 큰 길이었다. 영남로(동래-대구-충주-용인-한양)와 호남로(영암-나주-정읍-공주-수원-한양)는 안성에서 만나 서울로 이어졌다. 이 길은 당시 조선에서 가장 큰 길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낮은 집과 벽화가 이방인을 맞는다

마을 어귀는 버스 두 대가 겨우 엇갈려 다닐 정도의 좁은 길이다. 지금이야 동네 뒷길에 불과하지만 몇 십 년 전만 해도 안성의 중심길로, 시내버스는 이곳에 멈춰, 장을 보러 온 사람들과 장을 보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태웠다. 경기도에서 천안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으니 그야말로 '황금 목'이었다. 새 길이 뚫리면서 버스는 오래 전 이곳을 떠났고, 지금은 사람과 자전거가 한가롭게 다니는 길로 바뀌었다.

입구 오른쪽은 우전대장간이다. 대장간 주인은 김필오(55세) 씨로, 열다섯에 대장간 일을 시작했으니 40년을 쇠 만지는 일에 매달린 셈이다.

“한창 때는 말도 못했어요.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일했죠. 나 말고도 일꾼이 두 명이나 더 있었어요. 농기구 만들어달라는 사람도 많았고, 당시엔 마차를 타고 다녔으니 바퀴살도 만들거나 고쳐주곤 했죠.”

지금 농기구는 모두 공장에서 만든다. 중국에서 들어온 값싼 농기구도 넘친다. 마차는 경운기로 바뀐 지 오래다. 일꾼들은 모두 떠났고, 김필오 씨 혼자 대장간을 지킨다. 40년 동안 대장간을 했으니, '장인'이라 불리도 이상할 게 없지만 대를 이을 사람이 없다. 김씨는 “나 죽으면 끝”이라고 말한다.

대장간 건물은 100년이 넘었다. 처마 밑을 보니 지푸라기가 보이고 진흙으로 몇 번이나 덧발랐다. 대장간 안 못을 담은 종이상자



가 너털너털하다. 얼마나 시간이 오래 흘러야 저렇게 종이상자가 너털너털해질 수 있을까. 대장간 지붕 꼭대기엔 모루 위에 쇠를 놓고 메질(망치질)을 하는 장식품이 달렸다. 대안문화학교 달팽이의 이기원 교장이 만든 벽화물이다.

대장간 건너편은 신창정미소다. 현 방앗간 주인인 조춘형(65세) 씨의 처외삼촌이 1938년 열었다. 조씨가 방앗간을 물려받은 것은 20여 년 전이다.

가을이 되면 장정 일고여덟 명이 일을 해야 할 정도로 일감이 많았지만 지금은 딱 끊어졌다. 마을 농협마다 큰 정미 기계들이 들어서고, 쌀을 정부가 모두 수매하기 때문이다. 대장간 안 기계엔 먼지가 수북이 쌓였다. 벽에 걸린 가방에 내린 먼지는 세월이 만든 퇴적물이다.

이기원 교장이 기억하기로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 일대엔 오래된 집이 많았다. 90년대 들어서서 옛집들이 대부분 사라졌다. 우전대장간이나 신창정미소는 이 동네에 몇 곳 안 남은 옛 기록들이다. 옛 안성장이 서던 길을 따라 걷는다. 벽과 전봇대, 가게 문에는 옛날 포스터들이 다닥 붙었다.

그때 그랬지

'석탄 증산으로 경제 부흥 이룩하자'(대한석탄공사), '미국에서만 경구용 피임제 애용자가 매년 100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피임약이나보리 광고), '손으로 글자를 쓰던 시대는 지나가고 타자기로 찍는 시대가 왔다(국산 한글 타자기 프린스 광고), 어린이 갱기약 리미라, '간첩 잡아 상급타니 나라 좋고 나 좋다' '가래칩 빨는 곳에

결핵균 날뿜다'. 1960~70년대 유행했던 광고들이다.

옛집들이 제법 남아 있는데, 몇몇 집들은 옛날식 칠을 한 격자 문에 가게에서 파는 품목을 빨간색과 흰색 페인트로 써놓았다. 옛날 느낌이 나게 일일이 손으로 써 빼뿔뿔하다.

야고보 수퍼 앞에 섰다. 한 면 가득한 문과 나무로 만든 창호형틀은 어린 시절 많이 본 풍경이다. 창문에도 광고가 가득하다. '크라운맥주는 크라운스토아에서' '미원의 계절' '텃밭한 입안 상쾌

한 기분 셀렘민트껌'. 셀렘민트껌 광고에는 신동우 화백이 그린 홍길동이 있어서 반가웠다. 국내 최고 인기 만화가의 한 사람이었던 신 화백은 1994년 세상을 떠났다. 신 화백이 그린 홍길동은 1967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 나흘 만에 10만 관객을 모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담배 모양 껌 광고도 눈에 띈다. 지금 이런 상품이 나왔다면 논란이 되지 않았을까. 고바우만화방 처마에는 통나무가 박혀 있고, 양철로 마감했다.

동네에는 연탄집이 몇 곳 있다. 연탄과 쌀을 함께 파는 상회가 있는가 하면 연탄 직매소가 있다. 이기원 교장은 연탄 직매소에 연탄과 집게 모양 벽화를 붙였다(벽에다 직접 그린 게 아니라 양철판에 그림을 그려 오려 붙였다).

어느 연탄집 옆에 녹슨 짐자전거가 서 있다. 안장에는 파란색 비닐덮개를 덮었고, 짐받이엔 커다란 지지대가 세워져 있다. 체인을 보니 최근에는 움직이지 않은 듯 보인다. 짐자전거를 부지런히 굴리는 이가 저렇게 체인에 기름기 하나 없는 상태로 타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타이어에 공기가 제법 탱탱하게 있는 것으로 봐서 아주 오랫동안 방치된 것 같지는 않다.



위를 보니 가구전 길이라는 안내판이 붙어 있다. 오래전 사라진 안성장은 안내판에 박제처럼 이름만 남겼다. 장터웃머리길, 나무전길, 시장목길, 웅기전거리길 등을 보면서 사람들로 시끄러웠을 안성장을 떠올린다.

1995년 나온 <한국의 시장>이란 책에 보면 안성장에는 쇠전, 돼지전, 닭전, 곡물전, 웅기전, 포목전, 종이전, 어물전, 과일전, 유기전, 철물전, 돛자리전, 갓전, 신전, 주물전, 채소전, 약전 등의 좌판들이 즐비했고, 20여 곳의 대장간과 주막집, 밥집도 적지 않았다. 그때 그 상인들, 그 물건들은 모두 어디로 간 것일까.

다시 현실의 밑거름이 된 추억

길을 걷다 보니 배가 출출해서 동선네 구멍가게 문을 두드린다. 동선은 주인 할머니 손자 이름인데, 가게 입구에는 벽화 팀들이 만든 예쁜 간판이 붙어 있다.

할머니가 가게 일을 한 지는 20년 정도지만 이 동네에서 산 지 40여 년이니, 동네 역사가 할머니 기억 속에 가득하다.

가게 일을 하기 전 할머니는 지금은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와 함께 찰빵을 만들어 팔았는데, 인기가 좋아서 밀가루를 매일 두세 포씩 사용했다. 그때 찰빵을 먹던 아이들이 지금은 중년이 돼 찾아와선 그때 호롱불 켜놓고 팔던 할머니의 찰빵 이야기를 하고 간단다. 못 살고 먹을 게 귀하던 시절, 몰래 훔쳐 먹는 아이들도 있었다.

찰빵 이야기에서 시작된 할머니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장이 열리면 시골에서 올라온 아주머니들이 쌀이며 콩이며 팥, 마늘, 고추, 닭을 팔았다. 장에서는 국밥이나 국수, 전도 팔았다. 할머니는 "저기 1번 집 2번 집에서 국밥을 팔았고, 파출소 쪽에선

포목장수가 포목을 팔았다"고 자세하게 위치를 짚는다.

더 올라가 아버지 시절의 이야기까지 꺼낸다. 당시 마을 사람들은 안성천에서 빨래를 하고 목욕을 했다. 여성들은 밤에 천에 내려 먹을 감았다. 양치질도 하고 보리쌀도 씻어 먹었다. 겨울에 천이 얼면 썰매를 탔다. 할머니의 아버지와 마을 어른들은 그물을 들고 나가 천에서 물고기도 잡았다. 잡고 난 뒤에는 큰 가마솥에 물고기와 내장을 넣고 끓여 온 동네 사람들이 나눠 먹었다.

천변마을을 이틀 동안 둘러보고 안일옥으로 간다. 1920년대 안성장이 열릴 때 장 한 쪽에서 우탕을 끓여서 팔던 곳이다. 짧게 잡아도 역사가 80년이 넘는다. 1대 이상례, 2대 이양귀비를 거쳐, 3대 우미경과 김종열까지 이어졌다. 식당 벽엔 과거 안성장 모습이 흑백사진으로 걸려 있다. 안성장과 안성 우시장, 안성 최초 은행인 호서은행, 안성 최초 여관, 안성 초등학교 최초 교사 등이다.

안성에 사는 많은 이들에게 그 시절은 그리움이다. 그 시절만큼 안성이 안성다웠던 때가 없었기 때문이라. 안성시가 굳이 바



우덕이축제 장소를 천변마을 근처 안성천에 마련하고, 천변마을을 1960~70년대 거리로 꾸미려는 데서도 그런 절박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어쩌랴. 그 시절은 지나가버렸고, 그때 그 시장 그 집, 장사치는 모두 떠나버린 것을. 그럴듯하게 옛날 벽화와 포스터 등을 붙여도 정미소나 대장간 사장님이 한숨을 내쉬는 건 그래서일 게다. 그래도 떠들썩했던 그 기억과 그 이야기들이 쉽게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안성장 역사를 고스란히 품은 천변마을이 중요한 것은 그래서이고, 이는 천변마을을 단순히 예쁜 벽화 마을로만 기억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

슬픈 역사를 기념하기 좋은 곳

파두는 슬픈 음악이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상처와 결핍, 외로움에 대한 음악이니까. 그런데 리스본 사람들은 일부러 시간을 내어 '파두'라는 이 우울한 음악을 들으며 저마다의 슬픈 역사를 기념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 알았다. 내가 왜 서른여섯 나이에 리스본에 와서야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글 | 사진 김경

글을 쓰고 사진을 찍은 김경은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하고 여러 잡지사를 거쳐, 현재 패션지 (버자)의 차장이다. 칼럼집 (뷰티풀 몬스터), 인터뷰집 (김훈은 김훈이고 싸이는 싸이다), 여행 산문집 (세익스피어 배케이션)을 펴낸 작가이기도 하다.

아주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여덟 살, 어쩌면 아홉 살이었는데도 모른다. 다섯 살 이후부터 아버지와 어머니가 별거를 하셨고 그때부터 나는 줄곧 어머니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더욱 기억이 없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때 난 잘 알지도 못하는 아버지가 괜히 죽어버려서 나를 돌연 불쌍한 아이로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이 화가 나 있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애초부터 없었던 것처럼 여기며 살았다. 아주 오랫동안... 인간이란 자신의 편의를 위해 기억을 조작하기도 하고 망각하기도 하는 존재이니 그다지 놀라울 것도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리스본이라는 도시를 여행하는 동안 나는 문득문득 아버지라는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난 서른여섯이었고, 여전히 결혼하지 않은 홀몸이었다. 그런데 왜 리스본이었을까? 리스본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와 만난다는 초현실적인 이야기가 포함된 존 버거의 단편 소설집 (여기, 우리가 만나는 곳) 때문이었다. 존의 어머니는 살아생전에 리스본에 와본 적이 없다. 그런데 왜 리스본이었냐는 존의 질문에 그 어머니는 이렇게 답한다. "리스본은 만남의 장소란다. 이제 전차가 다니는 도시는 많지 않잖니. 여기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 밤에 몇 시간만 빼고."

리스본에 도착한 첫날, 존 버거가 뒀던 게 틀림없는 28번 전차에 올라탔다. 전설의 영웅 율리시스가 만들었다는 일곱 개의 언덕으로 이루어진 도시. 이 언덕의 도시를 오르락내리락 하며 도는 28번 전차는 리스본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명물이다. 출입문이 닫혔다. 전기 모터가 우웅 소리를 내며 출발하기 위해 발동을 걸었다. 낡은 노란색 전차는 가파른 언덕길을 덜컹덜컹하며 엉금 엉금 달리기 시작했다. 나무 의자가 놓여 있는 전차 내부는 오래전 모습 그대로이고, 달리는 전차의 창문 너머로 골목골목 남루하지만 소박하게 예쁜 집들과 창가에 나부끼는 빨래, 그리고 비좁은 거리를 종을 울리며 지나가는 전차를 피하기 위해 상점의 쇼윈도에 몸을 바짝 붙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봤다. 바로 그때 내 아버지에 대한 첫 번째 기억이 떠올랐다. 저녁 무렵 아버지가 신문에 싸인 생선을 들고 와서는 어린 나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 짓

던 모습. 나중에 어머니에게 들은 말로는 세 번째 아이였던 나를 임신하고 낙태를 고민하던 무렵 아버지가 '이번에는 딸아이일 것 같다'며 그냥 낳자고 우겼다고 한다. 어찌 되었든 내가 존재하는 건 내 아버지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은 거다.

리스본은 확실히 잃어버린 기억을 소환하기에 좋은 무언가가 있다. 유럽의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는 누구 하나 서두르는 기색이 없다. 모든 것이 과거의 향수에 젖어 있는 듯 느긋하고 애잔하게 흘러간다. 광장이나 거리 어디서든 음악을 입혀 손으로 그린 푸른색 타일 '아주엘로스 azulejos (16세기 무어인이 지배하던 스페인에서 포르투갈로 건너온 특유의 장식 예술 형태)'가 보여주는 그림들을 볼 수 있는데, 그건 마치 잃어버린 시간, 혹은 유년의 꿈을 찾아가는 여행 같은 노스텔지어로 다가온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엔 파두가 있다. 수많은 인명 피해와 함께 리스본의 삼분의 일을 폐허로 만든 대지진과 같은 리스본의 슬픈 역사와 애환을 대변하는 음악, 파두 말이다. 리스본 어디에서나 그 파두 음악을 들을 수 있었다.

파두는 슬픈 음악이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상처와 결핍, 외로움에 대한 음악이니까. 그런데 리스본 사람들은 일부러 시간을 내어 '파두'라는 이 우울한 음악을 들으며 저마다의 슬픈 역사를 기념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 알았다. 내가 왜 서른여섯 나이에 리스본에 와서야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너무 어려서 충분히 애도하지 못했거든. 그런데 리스본에서 파두 음악을 들으며 이제야 그 애도를 하게 된 것 같아." 한 파두 클럽에서 나와 같은 테이블을 공유했던 덴마크 여행자에게 내가 했던 말이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나니 이상하게도 속이 후련했다. 이제야 망각하고 싶지만 망각할 수 없었던, 부정하고 싶지만 부정할 수 없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내게 안겨준 유년의 상처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진 느낌이었다. 상 조르제 성 Castelo de São Jorge에서 오랜지색으로 물들어가는 리스본 시내를 내려다보며 나는 처음으로 내 아버지에게 미소 지어 인사할 수 있었다. "좋은 밤이에요, 아버지. 부아 노이트 Boa noite!" ■●

發光과 發狂의 한 곳을 가지고 놀다



사람들은 현대미술 앞에서 다소곳해진다. 자신의 이해를 믿지 못하고, 감상을 말하지 못하고, 즐기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쭈뼛거리기 일쑤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가장 자주 벌어지는 장소는 아마도, 백남준아트센터일 것이다. 백남준 스스로 “예술은 텃세다. 보편성이 아니다”라고 말했듯, 그는 보편성에 기대어 이해할 수 있는 예술가가 아니다. 그러니 당혹이든 불쾌이든 자극이든 경이든 간에 경험해보시라. 그것이 예술이 존재하는 이유고, 예술을 사용하는 방법 아니겠는가.

글 임종업, <한겨레신문> 기자 | 사진 고성홍, 백남준아트센터 제공

아내에게 물었다. 백남준 하면 떠오르는 말은? 아내가 답했다. “미쳤다[狂].”

백남준(1932~2006)은 다다이즘을 이은 플럭서스 운동의 일원이었고, 전위 예술계의 스타였으며, 미디어 아트 역사의 역사를 만들었다, 라고 하지만 나는 아내의 짧은 말을 믿는다.

과괴적 창조의 서막, <음악의 전시-전자 텔레비전>

1963년 3월 독일의 소도시 부퍼탈. 시내 갤러리 파르나스에서 <음악의 전시-전자 텔레비전EXposition of music-ELectronic television>이라는 제목의 전시회가 열렸다. 서른둘 청년 백남준의 첫 개인전이다. 제목은 근사해 보이지만 사실상의 전시회 제목은 ‘쇼머리 자르기’였다. 입구에 걸렸다가 경찰의 제지로 금세 떼어낸 쇼머리가 그것. 왕방울 눈을 부릅뜬, 잘린 목에서 금방이라도 피가 뚝뚝 떨어질 듯한.

전시장 안은 요지경 고물상이었다. 전시된 피아노 네 대 가운데 한 대는 병어리, 또 한 대는 뒤집어놔 현 위를 걸어 다닐 수 있었다. 멸절한 한 대는 작가 요셉 보이스 Joseph Beuys가 도끼로 산산조각 내버렸다. 비교적 온전한 피아노는 음가가 변경되어 건반을 누르면 엉뚱한 소리가 났다. 벽에는 오디오테이프 조각들이 붙어 있어 관객들이 테이프 재생기의 자기 헤드를 긁으면 조각난 소리들이 들렸다. 지하 배관에 강통, 열쇠 따위를 매달아 사람들이 건드리면 소리가 났다. 13대의 텔레비전을 뒤집거나 뒤어서 공간을 채웠고 화면은 제대로 수신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 수평-수직 주사선은 멋대로 너울거렸다.

단 열흘 동안의 이 전시에는 이후 백남준이 펼친 퍼포먼스, 비디오 예술, 텔레비전 조각 등의 씨앗이 모두 담겨 있다.

우선 <총체 피아노>. 모든 곡의 기본이 되는 악기의 음계를 흠뻑렸다. 그가 그토록 존경해마지않았던 음악가 아널드 쇤베르크에 대한 헌사. 쇤베르크 이전의 음악은 도레미파솔라시의 7음으로 이루어지는 7음계가 기초가 되고, 중심음을 기준으로 다른 음과 관련지으면서 화음을 악곡의 토대로 삼았다. 쇤베르크는 이러한 조성 법칙을 부정하고 음렬을 사용한 12음 기법과 무조 음악을 정립했다. <총체 피아노>는 역시 백남준이 스스로 추앙했던 존 케이지를 염두에 두기도 했을 터. 동양의 선에 심취한 케이지의 사고가 집약된 작품은 <4분 33초>. 이 곡은 연주자가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 뚜껑을 연 다음 4분 33초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전부다. 관객은 침묵 가운데 자기의 내면과 주변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다음으로 <렘브란트 자동장치> <TV를 위한 선線> <광점> <쿠바 TV> <참여 TV>로 이름 붙인 일련의 텔레비전 작품들. <렘브란트 자동장치>는 수상기를 뒤집어놓아 화면은 보이지 않은 채 스크린과 바닥의 틈새로 빛이 새어나오는 오브제이고, <TV를 위한 선>은 TV주사선을 조작하여 스크린에 단순한 선만을 보이도록 한 것. 나머지 셋은 볼륨 또는 자석을 이용, 관객들이 참여하여 스스로 스크린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당시 보급 초창기의 텔레비전은 피아노



<음악의 전시-전자텔레비전>(1963)을 재현해놓은 전시물

◎ 요셉 보이스 Joseph Beuys(1921~1986)

독일 크레펠트 출생.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 공군에 입대하여 비행사로 복무하다 소련군의 폭격을 맞고 러시아 크리미아 반도에 추락하여 죽을 뻔했던 경험에 있다. 그때 그 지역 원주민들이 그를 살려냈는데, 타타르인은 죽음을 다다란 그의 온몸에 버터를 바르고 펠트 담요로 몸을 싸 쓸매에 신고 마을로 데려가 회생시켰다. 그의 작품에 펠트, 왁스, 셀매, 약봉지, 동물 등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경험에서 유래한다. 이후 그는 예술과 삶의 본리를 부정하고 자신의 실 자체를 예술 작품으로 인식하게 된다. 1961년에는 모교의 조각과 교수가 되고 이후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하거나 환경운동에 가담하는 등 정치·사회적 성향을 강하게 띠면서 10여 년 활발한 퍼포먼스 활동을 벌였다.

1979년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대규모 회고전이 열렸고 1982년 카셀 도큐멘타에서 1000그루의 나무 심기를 시작했던 보이스는 1986년 1월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 아널드 쇤베르크 Arnold Schönberg(1874~1951)

오스트리아 빈 출생. 12음 기법의 창안으로 20세기 음악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또 베르크, 베베른 등 많은 뛰어난 제자를 육성해, 그들과 더불어 제2차 빈 악파로 불리기도 한다. 강제적으로 운명하지 못하여 거의 독학으로 음악의 기초를 닦았다. 초기의 작품은 주정주의의 세계를 묘사하는 후기 낭만파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현악 6중주곡 <정화된 밤 Verklärte Nacht>(작품 4, 1899), 교향시 <펠레이스와 멜리잔데 Pelleas und Melisande>(작품 5, 1903) <구레의 노래 Gurrelieder>(1900~1911) 등의 작품에서는 비그너의 말라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초기 작품을 거치고 나서 조성의 틀에 박힌 음악이 감감해진 그는 마침내 이를 무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3개의 피아노 소품>(작품 11, 1909)에서 조성과 결별하기에 이르렀다. 이 무렵부터 12음 기법을 고안하기까지를 ‘무조無調시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시기에 그는 <관현악의 5개 소품>(작품 16, 1909)과 <달의 피에로 Pierrot lunaire>(작품 21, 1912) 등의 걸작을 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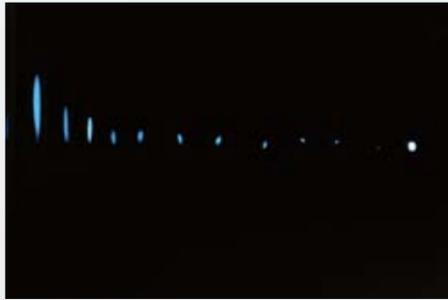
◎ 존 케이지 John Cage(1912~1992)

미국 로스앤젤레스 출생. 포모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H. 카우엘, A. 쇤베르크에게 작곡을 배웠다. 1938년 캘리포니아주 밀드 대학 음악교수였던 당시 발레의 반주 음악으로 <박카스의 죽음>을 작곡하면서 <Prepared Piano>를 발명하였다. 나사렛, 볼트, 너트, 종이, 고무지우개 따위를 피아노 현 사이에 쑤서 넣거나 해머에 부착시켜 놓은 탓에 그 피아노는 본래의 음질이나 음량에 변화가 일어나 소리가 아주 작아지거나 소리를 크게 내려고 키를 세게 누르면 현에 개웠던 나사렛 같은 것들이 튀어나와 다른 현에 부딪치는 소리가 났다. 1951년경부터는 독자적인 음악 사상에 입각해 문체적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1954년에 발표된 그의 피아노곡 <4분 33초>에서, 연주자는 피아노 앞에서 곡명의 시간만큼 아무 연주도 하지 않고 앉아 있다가 퇴장하는데, 이 사이 청중에게 들린 모든 소리를 음악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작곡자나 연주자에 의하여 제시된 음악적 재료를 무작위로 선택, 표현하는 음악을 ‘우연성의 음악’이라 한다.



백남준 | <참여TV> (1963/1988) | 비디오 설치 | 백남준아트센터 소장



백남준 | 《달은 가장 오래된 TV》(1965) | 백남준아트센터 소장



《살아 있는 조각을 위한 TV 브라》역시 전자 분야와 기술을... 인간화된 충격적인 사례이다. TV를 인간의 가장 은밀한 사물 가운데 하나인 브리로 사용하면서... 우리는 기술이 인간을 위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할 것이다. 여기서 상상력은 관객이 고백할 수 없는 성질의 상상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으로 하여금 우리의 기술을 새롭고 상상적이며 인간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상상력을 의미한다.
-《창조적 매체로서의 TV》그룹 전시회 팸플릿 중에서



백남준 | 《TV부처》(1974/2002) | 비디오 설치 | 백남준아트센터 소장

와 함께 재산 목록의 상위를 차지하며 지금처럼 안방을 점령했던 귀족품이었던 터. 백남준은 이를 마음껏 확대하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었다.

미래를 사유하는 예술가, 그리하여 달은 가장 오래된 TV

“도를 배우는 벗들이여! 법다운 견해를 터득하려면 남에게 미혹을 당하지 말고 안에서나 밖에서나 마주치는 대로 곧바로 죽여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아라한을 만나면 아라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친속을 만나면 친속을 죽여라. 그래야 비로소 해탈하여 사물에 구애되지 않고 투철히 벗어나서 자유자재하게 된다.” 임제 선사의 말처럼 부처와 조사와 아라한을 죽인 천하의 악동 백남준이 이듬해 이른 곳은 뉴욕.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파리를 대신하여 새로운 예술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그곳은 ‘속옷을 입지 않은 미녀’들은 물론 백남준이 잡으려는 호랑이들이 우글거렸다. 부처를 죽인 마당에 두려울 게 무엇이 있겠는가?

그를 기다린 것은 미녀 첼리스트 샬럿 무어만이다. 줄리어드를 나와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와 아메리칸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수석 첼리스트를 지낸 무어만은 제2회 아방가르드 축제에서 카를하인츠 슈토크하우젠(Karlheinz Stockhausen)의 《괴짜들》 공연을 앞두고 ‘동양에서 온 미치광이 예술가’를 말을 사람을 찾고 있었다. 마침 뉴욕에 온 백남준이 ‘딱’이었다. “성성이 미술과 문학에서는 지배적인 테마인데 왜 음악에서는 금지되어 있는가.” 성과 음악과의 결합은 퍼포먼스일 수밖에 없는 것. 대표적인 사건이 1967년 《오페라 섹스트로니크》 공연. 여기서 무어만은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어가며 첼로를 연주한다. 두 사람은 경찰에 체포되면서 언론을 탄다. 암으로 시한부 삶을 사는 무어만과 부처를 죽인 백남준의 만남은 운명적이라 수밖에. 백남준은 무어만을 위해 첼로 곡을 작곡했으며 《TV 첼로》 《TV 브라》 《TV 안경》 등 TV 작품을 만들었다.

《TV 브라》는 애초에는 기껏해야 장난처럼 취급받았지만 이를 통해 인간의 달 착륙 장면이 비춰지면서 중요한 의미를 얻게 되었다. 무어만을 텔레비전 본체로 변형시키면서 인간과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그의 상상력은 마구 뻗어나간다. 《TV 의자》 《TV 침대》 《TV 시계》 등 가전용품에서부터 《실체 식물/생방송 식물》 《TV 정원》 《비디오 물고기》 등 정원으로 확산되고 나아가 우주 공간으로까지 확산돼 《달은 가장 오래된 TV》 《태양》 《목성》 등의 작품이 나오게 된다. 또 《TV 부처》 《TV 십자가》 등의 작품도 이어지는데, 이미 부처를 죽인 바 있는 그에게는 대수롭지 않았을 것이다. 이 가운데 《TV 부처》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화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부처의 모습.

명상이 본디 시공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것이지만, 이 작품에서는 폐쇄회로 안에서 무한반복되는 나르시시즘이 되고 만다. 이 작품은 네 번째 개인전에서 화랑의 빈 공간을 메우기 위해 급조된 것인데, 급박한 상황이 오히려 함축적인 의미의 미니멀한 작품으로 귀결되면서 이후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변주된다.

어찌 됐거나 그는 우주의 유일자

텔레비전을 설치 조각의 소재로 사용하는 등 기발함 외에 백남준이 비디오 아티스트로 성공한 것은 그가 얼리어답터였기 때문. 1969~1970년 일본인 발명가 아베 슈야와 함께 비디오합성기를 발명한 이도, 소니에서 나온 비디오카메라를 1965년 미국 내에서 처음으로 구입한 이도 백남준이다. 그는 두 가지 기기를 활용하여 “콜라주 테크닉이 유화를 대체했듯이 음극관이 캔버스를 대체할 것이다”라는 자신의 언명을 실천에 옮긴다. 각종 비디오 작품들이 그것인데, 이 가운데 《글로벌 그루브》(1973)를 빼놓을 수 없다. 이 작품을 설명하면서 백남준은 지구촌 전역을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전자정보장치와 텔레비전이나 인공위성을 통한 인류의 하나 됨을 예고한다. 그 이듬해는 록펠러재단의 전자 초고속도로 프로젝트에 응모해 1만 2000달러의 제작비를 지원받기도 했다. 이러한 그의 구상은 1984년에 가장 근접하게 구현된다.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 한국,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미국 등에서 동시 중계되면서 자신의 비디오작품으로 지구촌을 뒤덮는 데 성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992년 빌 클린턴과 엘 고어가 ‘정보 초고속도로’ 공약을 들고 나왔다. 당선된 뒤 이 공약은 50억 달러를 퍼붓는 클린턴 행정부의 승부수가 되었다. 이런~이런~.

백남준은 1993년 대전엑스포와 베니스비엔날레에서 ‘클린턴이 내 아이디어를 훔쳤다’고 공표한다. 백남준의 결정적인 받아치기는 1998년 백악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뤄진다. 클린턴 앞에서 바지를 내려버린 것.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것은 ‘엇 먹으라’는 의미. 이 장면은 전 세계 매체를 통해 지구촌을 덮음으로써 백남준의 마지막 퍼포먼스가 되었다.

백남준은 생전에 어릴 적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소학교 때 폐물을 이용해 기발한 것을 만들어 오라는 숙제를 내줬단다. 자기는 무엇인가를 만드는데, 동갑내기 이종사촌 고옥희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이 없으니까 만들 것이 없다”며 아무것도 만들지 않더라는 것이다. 백남준은 내내 없는 것을 만들어냈고, 그 세계에서 그는 제왕이었다. 그가 게임의 규칙을 만들었으니까.

“당신이 게임을 하려는데 게임 규칙을 모른다면 게임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술계에서는 하룻밤 새에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지요. 당신이 게임에 질 것 같으면 규칙을 바꾸면 됩니다. 나는 미술 잡지를 보지 않습니다. 너무 비싼 데다 모든 게임을 이러쿵저러쿵 정해버리니까요.”

이제 자문할 차례다. 백남준은 무엇인가? “자극이다.”

쉴 새 없이 눈과 귀로 밀려드는 시청각물 홍수. 무덤 대로 무더진 나의 신경은 용인을 갈 때마다 신앙고백을 하고 난 뒤처럼 화들짝 깨어난다. 거기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백남준과 그의 후예들의 ‘단순 포악한’ 작품을 만나기 때문. 어디서 저런 배짱이 나왔을까. 그토록 기발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을까. 어떻게 하면 저 나이에 저토록 젊은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한 가지 반대 가정. 만일 그가 한국을 떠나지 않았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



백남준 | 《TV정원》(1974/2002) | 비디오 설치 | 백남준아트센터 소장



백남준 | 《굿모닝 미스터 오웰》(1984) | 스틸컷 | 백남준아트센터 비디오 아카이브 소장

오래전부터 위성을 이용한 문화 이벤트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비교적 적은 비용(1만 달러)으로 문화 프로그램의 생방송을 시도한 적은 드물다. 예를 들어 머스 커닝햄과 장 루이 비로가 유명한 듀오 춤을 추는 장면이 TV로 실시간 중계된다고 상상해보라. 오늘날 시몬 드 보부아르와 노먼 메일라가 실존주의적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고 상상해보라... 혹은 요셉 보이스와 존 케이지의 듀오 퍼포먼스도 좋다. ‘하늘이 한계이다!’라는 표현은 이제 은유가 아니다.

-《굿모닝 미스터 오웰》의 시나리오 초안(1983년 5월) 중에서



장난감을 나누니 기쁨이 커지는 아이들의 신세계

가장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인냐는 질문을 받으면,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 '장난감'이라 대답했던 시절이 있다. 그때 장난감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친구의 장난감을 부러워하며 부모님을 원망했던 기억도 있다. 어린이의 이런 마음을 헤아린 것일까. 신세계에서는 장난감 도서관을 만들어 장난감을 나누고 있다. 아이들에게는 이런 장난감 도서관이야말로 눈이 휘둥그레지는 '신세계'일 것이다.

글 강혜란_자유기고가 | 사진_신세계 기업윤리실천사무국, 광명 희망 장난감 도서관 제공

어른들은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거나 때를 쓰는 아이 앞에서 모질어지기 힘들다. 자신들도 그랬다는 걸 어렴풋이나마 기억하기 때문이다. 장난감은, 자라면서 수없이 겪게 될 결핍의 첫 번째 모티프다. 그렇게 갖고 싶은 것을 다 갖기 힘들다는 것을 깨달으며 어른이 되어간다. 이것이 아이들이 겪어야 하는 구세계라면, 적은 돈으로 많은 장난감을 가질 수 있는 곳, 떼쓰지 않고 좀 더 당당하게 장난감을 요구해도 되는 곳은 아이들의 신세계다.

장난감으로 추억을 공유한다

신세계는 현재 전국 여덟 곳에 '희망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 여섯 번째로 문을 연 광명시의 희망 장난감 도서관이 다른 지역보다 이용률이 높고 잘 운영된다고 해서 그곳을 찾아가 보았다.

소문을 듣고 멀리서 찾아오는 이들도 있지만, 주로 근처 임대 아파트 주민들이 즐겨 이용하고 있다. 블록, 인형, 소꿉놀이기구, 레고, 완구자동차 등 약 650점의 다양한 장난감이 구비되어 있다. 저소득층에게는 무료로 대여하고, 일반인은 연회비(2009년 기준 2만 원)를 내고 정회원이 되면 이용이 가능하다.

“장난감을 사주긴 하는데, 감당이 안 돼요. 하나 사주어도 금세 싫증을 내면서 또 사달라고 때를 쓰거든요. 그래서 마트에 가면 마음이 조마조마한데, 여기에 오면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웃으며 마음껏 고르라고 하죠.”

두 아이가 장난감을 좋아해 자주 찾는다며 자칭 열혈 팬이라 소개한 한 주부는 이 도서관의 가장 큰 장점으로 백화점처럼 장난감의 종류가 많다는 것을 꼽았다. 두 번째로 꼽은 장점은 위생 관리였다. 여러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위생 상태에 대해 불안해할 거라는 우려와는 다른 대답이었다. 도서관에서는 반납된 장난감을 모두 살균·소독해서 새것과 다름없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이들은 장난감을 대여해서 집에서 혼자 노는 것보다 친구와 함께 노는 것을 더 좋아해서 장난감 도서관에는 놀이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아이들이 장난감만큼이나 친구를 좋아한다니 안심이다. 이렇게 같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같은 추억을 만들어가는 아이들. 시간이 흐르면서 장난감은 낡아 없어지겠지만, 아이들의 기억 속에서는 영원히 회자될 것이다.

신세계가 만든 좋은 세계

좋은 일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 신세계에서는 진리다. 직원이 기부금을 내면 회사에서도 동일한 금액을 내놓는다. 이 기부금으로 함께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어린이재단에 전달해 난치병 어린이의 수술비로 보태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 장난감을 기증해 희망 장난감 도서관을 만들기도 했다. 끝이 아니다. 놀이 공간을 청소하고, 장난감을 소독하고, 아이들과 함

께 행사를 열며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직원들은 삶의 활력소를 얻을 수 있어 오히려 좋다고 했다. 올해도 신세계의 좋은 일은 계속된다. 성남시를 비롯해 세 곳에 희망 장난감 도서관을 더 오픈할 예정이라 한다. 광명 도서관에서는 일일 축제 등 작은 이벤트도 열릴 예정이다 하니, 장난감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들과 씨름하지 말고, 차라리 가까운 장난감 도서관에 한번 가보는 것은 어떨까. ■●

희망 장난감 도서관 광명점 이용 안내

위치 : 경기도 광명시 하안3동 3단지 내 하안종합사회복지관 별관 3층

운영 시간 : 평일 10:00~17:00 | 토요일 10:00~15:00

점심 시간 : 12:00~13:00

휴관 : 매주 월요일, 일요일, 공휴일

문의 : 02-897-5979



도서관으로 부활한 동네 사랑방

책이 있어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니 문화가 만들어진다. 오늘날 복합문화공간의 중심에 서점이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짜릿한 오락거리도 아닌데, 사람들은 책을 중심으로 모여들고, 그 모인 자리에서는 대화가 오가고, 그 대화는 동심원을 그리며 여러 분야로 번진다. 많은 지역 도서관들이 동네 사랑방이 되어가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일상에 밀착한 후쿠오카시 미나미 도서관

<http://toshokan.city.fukuoka.lg.jp>

미나미 도서관은 주민 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 도서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유아를 위한 시설이다. 카펫 위에는 장난감과 그림책, 형질을 이용한 글자 배우기 등의 놀이기구들이 놓여 있다. 아이와 부모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유아용 작은 책상에서부터 일본식 좌식 의자까지 아기자기하고 깔끔하게 꾸며놓았다.

주민들은 도서관을 낯설어하지 않고, 동네 사랑방처럼 드나든다. 지역 도서관답게 지역 정보를 담은 매체를 많이 구비해놓아서, 각종 지역 정보지를 열람하기 위해 찾는 사람도 많다. 이 지역 정보지는 물물교환과 부동산 정보, 맛있는 음식점 탐방 등, 일상생활에 밀착한 기사를 담고 있다.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방식도 이와 비슷하다. 마음먹고 날 잡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편익점 들르듯 오고 간다.

이렇게 도서관이 주민의 생활과 친밀해진 이유로, 미나미 도서관이 후쿠오카 시민센터 부지 내에 위치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

다. 이 후쿠오카 시민센터 부지 내에는 연극이나 음악회 등의 무대가 열리는 문화 홀과 시청각실, 음악실, 회의실, 체육관 등이 있어, 도서관을 찾는 주민들은 이런 문화적 시설들을 자연스럽게 이용한다. 음악회에 왔다가 도서관에 들르기도 하고, 도서관에 왔다가 전시를 관람하기도 한다. 문화 시설들이 함께 모여 있음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역에서 15분 정도 걸어 도착할 수 있는 위치는 접근성을 높였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다른 도서관과의 원활한 네트워크(후쿠오카 시에는 후쿠오카 시 미나미 도서관을 포함하여 10개의 도서관이 있는데, 모든 도서관은 온라인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고, 그 중심에 후쿠오카 시 종합도서관이 있어 9개의 분관을 총괄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여러모로 편의성을 제공했으며, 어린이를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에 집중함으로써 가족 단위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었다.

미나미 도서관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달에 한 번 주제를 바꿔가며 추천 도서 부스를 마련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다. 2010년 1월의 주제는 '꿈이 가득한 책'. 어린이의 키에 맞춘 아기자기한 부스처럼 작은 것들을 놓치지 않는다. 규모는 작지만, 배려는 크다. 미나미 도서관에서 작은 지역 도서관의 나아갈 길을 본다.

이경미 경기문화재단 일본 통신원



“오-트라 오-트라(하나 더, 하나 더).” 삼삼오오 앉아 있던 아이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신나게 외치는 소리다. 이에 동화 구연가는 내가 너무 잘한 것 같으며 너스레를 떠난다. 매주 금요일 오후에 열리는 구연동화 모임은 어린이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다. 마드리드의 서민 지역인 푸에르타 데 톨레도Puerta de Toledo 광장에 위치한 이 도서관은 1994년 개관한 후 지역 주민의 도서관, 문화센터, 정보제공센터로 자리매김해왔다. 문학, 역사, 언어, 컴퓨터, 공예 관련 강좌, 토론, 전시, 콘서트,연극 등의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된다. 연령대에 따른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는데, 강좌를 신청할 때마다 항상 대기자 명단을 작성해야 할 만큼 인기 있는 성인 프로그램으로는 '문학 토론'이 있다. 독서의 생활화와 바른 습관화를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문학 프로그램도 있다.

마드리드는 이민자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17퍼센트에 이르는 다문화 사회다. 그래서 도서관에서도 '열린 도서관, 함께 살아가는 도서관'이라는 모토 아래 이민자들과 스페인 시민이 함께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존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민자를 위한 스페인어 강습과 문화 공연이 있고, 구직과 교육, 건강 등의 상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문화 중개자' 제도가 있어서 스페인어에 서툰 이민자들의 언어 소통을 도와준다. 이민자가 많은 나라를 중심으로 중개자를 두고, 그 나라를 소개하는 세미나, 전시회,

다문화의 중심점이 되는 페드로 살리나스 공공 도서관

www.madrid.org/bpcm

영화 상영회를 연다. 다른 나라의 문학 서적과 작가, 언어, 전통 의상, 음식, 풍습, 공예 등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열고, 그곳에 다녀온 적이 있는 여행자의 경험을 듣는 자리도 마련한다. 또한 해당 국가의 도서를 많이 구입해서 이민자들의 자국어 독서를 돕고 있다.

그 밖에도 흥미 있는 프로그램이 다수 있는데, 지역의 무명 예술가에게 도서관의 전시 공간에서 작품을 선보이는 기회를 주거나 무명 시인(만 36세 미만)에게 자신의 시를 청중에게 낭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노인을 위한 서비스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도서 배달 서비스가 있는데 70세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에 전화 한 통으로 책, 비디오, 음악 CD 등을 집에서 받아보고 반납할 수 있다.

이 도서관만의 아름다운 전통 행사로는 책의 날인 4월 23일에 <돈키호테>를 읽는 것이 있다. 종일 진행되는데 온 지역 주민이 줄을 서서 돌아가면서 한 줄씩 큰소리로 낭독을 하는 것이다. 한편, 도서 공간 부족으로 불필요하게 된 책이나 많이 구비하고 있는 책은 학교나 사회단체 등에 기부하거나 도서관 입구에 두어 이용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

친절하기 그지없는 올란다Yolanda는 한 시간 내내 질문 하나 하나에 성실히 답해주고 도서관 아래층, 위층을 오가며 관련 카탈로그를 챙겨준다. <경기문화나루> 최신호를 보여주자 흥미롭게 바라보더니,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게 적다며 이런 좋은 잡지는 스페인어로 번역되어 한국을 이곳에 알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습이 베테랑 사서다웠다. ■●

홍현숙 경기문화재단 스페인 통신원





bojagi001 | gum bichromate print | 60x50cm | 2004 © 김수강



bojagi011 | gum bichromate print | 60x50cm | 2004 © 김수강

품고 감싸고 푸는 인생사처럼

내가 여기에서 보여주는 이야기들은 어쩌면 주의를 기울일 정도의 무게도 지니지 못한, 내 작은 생활을 이루었고 이루고 있는, 그저 그뿐인 것들인지도 모른다.

그들의 크기, 존재 의미,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시간의 길이...

아무것도 그다지 별스러운 게 없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바라본다. 오랫동안. 그 안에 작은 우주가 있다.

-작가 노트 중에서-

김수강

김수강은 서울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한 뒤 미국 프랫 인스티튜트 대학원에서 사진을 전공했다.

오랫동안 회화 작업을 해오던 그는 대학원 졸업전에서 검 바이크로메이트 Gum Bichromate 기법을 이용한 사진 작품을 전시했다.

첫 전시는 1998년 갤러리 2000에서 열린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이며, 이후 몇 차례의 개인전을 열었다.

〈있음〉〈In My Hand〉〈White Vessel〉〈보자기〉〈조약돌〉같은 주제로 꾸준히 작업하고 있다.

공근혜 갤러리의 〈한국 컨템퍼러리 작가 5인전〉(2006), 국립현대미술관의 〈한국현대사진 60년전 1948~2008〉(2008) 등의 단체전에도 참여했다.

REVIEW

미술계의 흐름과 미술관의 지향이 만나다

경기도미술관 2009 신소장품전 <오! 명화>



경기도미술관 2009 신소장품전 <오! 명화>(~2010년 4월 18일)는 한 해 동안 수집한 소장품을 통해 2009년 경기도미술관의 성과를 공개하고, 한국 현대미술의 다양한 시도와 흐름을 소개하는 자리다. 지난해 경기도미술관이 수집한 신소장품은 1970년대 이후 한국 현대미술사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우거나 당대의 경향을 이끌었다고 인정받는 작가의 작품들이다.

이번 <오! 명화>전에 선보이는 작품들은 서세욱, 조성묵, 홍명섭, 이상남, 정보원, 정연두, 양혜규, 배영환 등, 현대미술 작가 55명의 1970년대부터 2009년까지의 미술 작품 58점이다.

미디어 작품 가운데 눈길을 끄는 이재이 작가의 <Seasaw>는 다섯 개의 비디오 화면 속에 바다를 연상시키는 화면을 보여준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진짜 바다가 아니라 파란 털실을 풀어놓은 것. 작가는 재생산의 작업을 '위조'하는 과정이라고 말하며 우리의 기억 속 풍경을 더듬는다. 진짜와 가짜의 간격이 멀기에 진짜를 환기시키는 가짜 풍경들이 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양혜규 작가의 <건축적인 신중함을 애도하며>는 철제 코트걸이에 전선과 털실, 양말, 철망 조각 로프 알전구들이 뒤엉켜 조심스레 미적 균형을 이룬 채 매달려 있는 설치미술 작품. 이는 애매모호하면서도 고정된 의미를 지닌 사물의 이중성을 포착한 것이다. 질서와 균형으로 대변되는 공동체에 정착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존재하는 이방인의 모습을 은유하면서 삶의 근본적 의미에 대해 물음을 던진다. 평면 작품 중에서는 광덕준 작가의 <대통령과 광> 시리즈가 재미있다. 이 시리즈는 1974년부터 2009년까지 새로운 미국 대통령 얼굴이 표지에 실린

<타임>지를 구입해 표지의 대통령 얼굴과 작가의 얼굴을 오버랩해 제작한 작품이다. 작가는 미국 권력의 수장이 여러 차례 바뀌며 역사는 끊임없이 변했지만 일반인들의 일상은 변한 것이 없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이번 경기도미술관 신소장품전 <오! 명화>에서 읽을 수 있는 현대미술의 흐름은, 미술의 개념과 범위가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회화 작품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전시장 절반이 평면 작품이지만 전통적인 회화 작품은 찾아보기 어렵고, 반면 사진의 비중은 커지고 있다. 구성연 작가의 <사탕>은 모란꽃을 사탕으로 표현해 재현한 사진 작품이다. 얼핏 보면 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사탕을 꽃 모양으로 만들어 사진으로 찍은 것이다. 이 바뀌어치의 묘미는 사진의 재현성을 뒤집는 데서 온다.

오늘날에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과학기술의 발달과 현대미술의 변화 때문에 캔버스 작품은 사라지게 될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캔버스 작품이 가진 장식적 기능과 이 세상에 유일한 작품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현대미술이 아무리 디지털로 변해가도 전체적인 흐름과는 별개로 아날로그 캔버스 작품은 수백년 후에도 살아남을 것이다.

현대미술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전통적인 회화나 조각 같은 장르가 그 전통성을 견지하고 있는 한편, 대형 설치작품, 미디어아트, 퍼포먼스, 인터랙티브 아트 등의 새로운 예술 형식들도 커다란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 <오! 명화>전은 이처럼 다양한 언어를 담아내는 경기도미술관의 유연성이 돋보이는 전시다.

글 윤승재_경기일보기자 | 사진 고성홍

죽은 매화나무에서 어떻게 꽃이 필까?

<디지털그 사물놀이 '죽은 나무 꽃 피우기'> 공연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4D 예술 <디지털그 사물놀이 '죽은 나무 꽃 피우기'> 공연이 지난 1월 27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종로구 사직동 광화문아트홀에서 열렸다. 경기창조학교(명예교장 이어령)와 (사)한국전통연희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이번 공연은 전통 사물놀이와 그래픽 기술이 결합된

'디지털그(디지털+아날로그)'의 향연이었다. 더 이상 꽃피울 수 없을 것같이 보이는 고목枯木에 절정의 순간을 되찾아주자는 취지의 프로젝트다.

공연은 전통의 가락과 최첨단 그래픽 기술이 잘 어우러져 이때까지 선보였던 사물놀이의 개념을 360도 바꾸어놓았다. 장구와 팽과리 장단에 맞춰 꽃잎이 날리고 안숙선 명창의 소리에 맞춰 꽃이 피는 가상현실의 무대에서 관객들은 좀처럼 눈을 떼지 못했다. 김덕수 사단이 뿜어내는 가락과 장단에 따라 관객의 어깨도 함께 들썩였고 연주자들의 머리 위로는 민들레 홀씨가 바람을 타고 날았다. 무대 한쪽에서는 사물놀이패의 실제 연주에 맞춰 홀로그램으로 만들어진 무희가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했다. 기술과 예술의 완벽한 조화였다.

공연을 기획한 이어령 창조학교 명예교장은 "디지털그 공연은 무대 출연자들과 디지털 기술이 상호 작용하며 오감을 만족시키는 창조적인 예술"이라며 "무대 예술뿐만 아니라 교육, 스포츠 분야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죽은 매화나무에 꽃을 피우게 만든 것처럼, 사람들의 창의성도 활짝 피게 할 경기창조학교의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천천히, 그러나 충만하게

배영환의 <느리게 읽는 미술 책방> 오픈



지난 2월 17일에는 수원미술전시관 앞뜰에 '느리게 읽는 미술 책방'이 문을 열었다. 왜 느리게 읽는 미술 책방일까? 시각장애인들이 예술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이야기를 촉각책과 점자책으로 제작한 책이기 때문이다. 이 책방에서는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 또 단순히 복지 차원을 넘어 예술 창작 사랑방으로 운영한다는 포부도 갖고 있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며 평일은 오후 1시~5시,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을 연다.

아시아도 태평양도 문화로 통한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과 업무 협약



지난 2월 10일 경기문화재단(대표 권영빈)과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원장 이승환)이 문화협력과 학술교류 등을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아시아 태평양지역 내 다문화 이해교육, 평화·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문화·예술 이해를 위한 정보 교류 및 관련 사업 실행, 다문화 관련 정책 정보 교류 및 다문화 자료 개발, 문화예술 기관과 관련 지역 기구 간 네트워크 구축 협력 및 공동 사업 수행 등 4개 조항에 합의하고 지속적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NEWS | MUSEUM



〈경기 관찰사 특별전〉*

임금을 대신해 경기도의 행정과 정치를 지휘 통제하며 수장 역할을 했던 경기 관찰사(경기감사)에 관한 전시가 경기도박물관에서 열린다. 경기 감영, 관찰사의 업무, 경기 관찰사 역임 인물로 나눠 고지도, 탁본, 고문헌, 초상화, 글씨 등의 유물을 전시한다. 행정과 정치를 통해 조선시대 '경기'의 참모습을 볼 수 있는 전시다.

3월 24일~5월 23일 | 경기도박물관 | 문의 031-288-5300
www.musenet.or.kr

〈2010 제2회 광주백자공모전〉**

경기도 광주는 조선시대 궁궐에서 쓰던 도자를 만들던 곳으로 유명하다. 관요에서 만들던 도자는 주로 백자였다. 조선백자의 전통을 계승하고,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작품을 공모를 통해 선정한 것이다. 전시는 제13회 광주 왕실도자기 축제와 더불어 진행된다.

4월 23일~5월 22일 | 경기도박물관 | 문의 031-799-1500
www.ggcm.or.kr

〈랜덤 액세스 Random Access〉전***

백남준아트센터에서는 백남준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

선과 현대 예술의 접점을 찾기 위해 '열두 개의 방'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그 첫 번째 전시로 백남준의 작품과 글 가운데 모티프를 얻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독립적인 공간을 구성하는 랜덤 액세스전이 열린다.

3월 23일~ | 백남준아트센터 | 문의 031-201-8500
www.njpartcenter.kr

〈사진으로 보는 화성-백년의 여정〉****

정조의 꿈이 서린 화성은 동서양 성곽의 장점이 집합된 '성곽의 꽃'으로 1796년 완공되었다. 그 후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큰 폭풍에 휘말려 화성은 제 모습을 잃고 퇴락했으나 〈화성성역의궤〉 덕에 완공 당시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 사진 속 화성의 모습은 역사와 닮아 있다. 한말·일제강점기 시기의 사진에서는 온전한 화성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일제에 의해 강제로 성곽이 헐리고, 근대화로 인해 훼손된 모습들도 볼 수 있다.

2월 4일~3월 28일 | 수원화성박물관 | 문의 031-228-4205 |
museum.suwon.ne.kr

경기도미술관 미술사 연표 설치*****

경기도미술관에서는 오는 4월, 고대에서부터 현재

에 이르기까지의 한국과 서양 미술사 연표를 제작해 미술관 벽면에 설치할 예정이다. 이는 현대미술을 불편하고 어렵게 여기는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한 것이다. 미술이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해온 것인지를 알면, 이런 맥락을 모를 때와는 다른 심도 깊은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술관 입구에서부터 걸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미술의 변천사를 훑어볼 수 있는 동선이다. 특히 우리 미술의 흐름을 병행해놓아서 서양 미술사와 비교해볼 수도 있다.

실학 교육 프로그램*****

2009년 10월에 개관한 실학박물관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학과 조선 후기 사회를 들여다보는 '청소년 실학 강좌'와 '동아리 실학 교실'을 운영한다. 온 가족이 여행하며 실학을 배울 수 있는 '가족 실학 여행'과 체계적으로 실학을 공부할 수 있는 '실학 아카데미'도 운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문의 031-579-6000 | www.silhakmuseum.or.kr

PLAY + FESTIVAL | NEWS



뮤지컬 〈미스 사이공〉*

뮤지컬의 위대한 장인들이 탄생시킨 불멸의 역작이다. 전쟁의 폐허에서 피어난 가슴 시린 사랑, 목숨과 바꾼 눈물겨운 모성애, 동서양의 문화 장벽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스토리, 애절한 선율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작품이다. 3D 기법으로 처리한 웅장한 헬기, 실제로 무대를 누비는 캐딜락 등의 스펙터클한 무대와 1300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주역을 움켜진 최고 배우들이 함께해 더욱 기대를 모은다.

• 3월 13일~4월 4일 | 고양 아람누리 아람극장 | 문의 1577-7766 | www.artgy.or.kr
• 4월 16일~5월 1일 | 성남아트센터 | 문의 031-783-8000 | www.snart.or.kr

시크릿 가든 내한공연**

시크릿 가든 Secret Garden 은 차갑고 투명한 서정성을 지닌 뉴에이지 그룹이다. 비밀의 정원에서 흘러나오는 듯한 선율이 그 이름만큼이나 신비롭다. 섬세한 감수성을 어쿠스틱 악기로 잘 표현해 드라마의 배경음악으로도 자주 쓰였다. 2인조로 구성된 그룹이지만 오보에, 만돌린, 하프, 휘슬, 키-피들, 윌리엄 파이프 등을 포함해 7인조 전통악기 세션들과 함께 연주 활

동을 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 시크릿 가든은 자신들의 히트곡을 모두 들려줄 예정이다.

4월 7일 오후 8시 | 고양 아람누리 아람극장 | 문의 1577-7766
www.artgy.or.kr

연극 〈그대를 사랑합니다〉***

'막장'이 환영받는 요즘 세태에서 '내일 당장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나이'의 노인들이 사랑하는 이야기가 무슨 재미가 있을까 싶겠지만, 이 촌스럽고 진솔하고 따뜻한 이야기에 열렬히 호응하는 관객이 2008년 초연 당시 10만 명이 넘었다.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유쾌한 웃음을 잃지 않고, 노인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젊은 층의 공감을 얻었기 때문이다.

3월 26일~27일 | 의정부 예술의전당 | 문의 031-828-5841
금요일 : 오전 11시, 오후 7시30분 | 토요일 : 오후 5시
www.uac.or.kr

제15회 한국 고양꽃 전시회****

'향기 가득, 행복 가득'을 테마로 제15회 한국 고양꽃 전시회가 열린다. 〈참가 업체관〉, 〈산수조경〉, 〈주제관〉, 〈자연생태관〉, 〈화훼 상품관〉, 〈세계압화공예대전〉이 실내 전시의 주요 프로그램이다. 야외에서

는 튜립, 수선화, 히아신스가 장관을 이루는 〈구근원〉과 일곱 가지 색깔 꽃으로 장식된 〈무지개 미로〉, 오즈의 마법사, 신데렐라 등의 동화 내용을 연출한 〈동화 정원〉, 〈꽃 조형물〉, 〈장미 정원〉 등, 13가지 테마 전시가 마련된다. 또 주별별 자연친화적 테마 화단이 조성되어 생활 조경을 선보인다. 유실수와 정원수, 돌담, 정자가 어우러져 고즈넉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무릉도원 정원〉도 놓칠 수 없는 볼거리다. 4월 20일까지 성인 기준 4000원으로 현장권보다 저렴한 가격에 예매권을 판매한다. 예매 입장권 구입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4월 23일~5월 9일 | 고양시 호수공원 고양꽃전시관
www.flower.or.kr

경기국제항공전*****

관련 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레저 인구의 즐거운 체험의 장이 될 경기국제항공전이 안산에서 열린다. 각종 항공 관련 산업전과 월드 챔피언이 참여하는 에어쇼, 레저 항공을 자연스럽게 다양하게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4월 30일~5월 5일 | 안산시사동 1639 | www.skyexpo.or.kr

2010 | 03 March

04 April

SUN	MON	TUE	WED	THU	FRI	SAT
28 〈2010 아침고요 한반도 야생화전〉 2월 26일~5월 16일 아침고요수목원 〈목화회〉전 2월 27일~3월 7일 성남아트센터	1 · 삼일절 〈백년의 여정〉 2월 4일~3월 27일 수원화성박물관	2 	3	4	5 임동혁 피아노 리사이틀 〈Beyond Chopin〉 3월 5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6 · 경칩 〈동아리 실학교실〉 실학박물관
7 〈신동 모차르트와 악성 베토벤〉 군포시문화예술회관	8	9 〈세르게이 트로파노프 & 집시 앙상블〉 의정부예술의전당	10 	11	12	13 〈양평단월고로식축제〉 3월 13일~3월 14일 단원면 보통리 웅산과 세르게이 트로파노프의 〈집시열정〉 3월 13일 하남문화예술회관
14 뮤지컬 〈헤드윅〉 3월 13일~3월 14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15 뮤지컬 〈미스 사이공〉 3월 13일~4월 4일 고양아람누리	16	17	18 〈3월 마티네 콘서트〉 성남아트센터	19	20 〈동아리 실학교실〉 실학박물관
21 · 춘분	22	23 	24 〈경기관찰사 특별전〉 3월 24일~5월 23일 경기도박물관	25 	26 연극 〈그대를 사랑합니다〉 3월 26일~3월 27일 의정부예술의전당	27
28	29	30	31	4-1 〈12회 대한민국 화성서예문인화대전〉 4월 1일~4월 6일 경기도문화의전당	2 연극 〈내 남자는 원시인〉 4월 2일~4월 11일 고양아람누리	3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하남문화예술회관 〈동아리 실학교실〉 실학박물관

SUN	MON	TUE	WED	THU	FRI	SAT
4	5 · 청명 식목일	6 · 한식	7 〈시크릿가든 내한공연〉 고양아람누리	8 〈제1기 실학아카데미〉 4월 8일~5월 27일 실학박물관		10 〈시크릿가든 내한공연〉 군포시문화예술회관 오페라 갈라콘서트 〈카르멘의 유혹〉 하남문화예술회관
11	12 	13 〈모닝콘서트〉 의정부예술의전당	14 	15 4월 마티네 콘서트 성남아트센터	16 뮤지컬 〈미스 사이공〉 4월 16일~5월 1일 성남아트센터	17 2010 VISION 〈우리춤〉 경기도문화의전당 〈동아리 실학교실〉 실학박물관
18 〈가족실학여행〉 실학박물관	19	20 · 곡우	21	22	23 〈한국고양꽃전시회〉 4월 23일~5월 9일 호수공원 내 고양꽃전시관 〈13회 광주왕실도자기축제〉 4월 23일~5월 9일 경기도자박물관 〈2010 제2회 광주백자공모전〉 4월 23일~5월 22일 경기도자박물관	24 해설이 있는 가족음악회 〈I Love Classic〉 고양아람누리 장사의 소리판 〈따뜻한 봄날 꽃구경〉 하남문화예술회관
25 〈24회 이천도자기 축제〉 4월 24일~5월 16일 설봉공원 〈22회 여주도자기 축제〉 4월 24일~5월 9일 신록사국민관광지내	26	27 	28	29	30 〈2010 경기국제항공전〉 4월 30일~5월 5일 안산시 사동 1639	1 · 근로자의날 
2 	3	4	5 · 어린이날 입학	6 		

◎〈경기문화나루〉는 경기도 내 도서관, 문화기관, 농협 등에서 독자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독자와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 있으면 naru@ggcf.or.kr로 보내주세요.

열매만 거두지 말고 떡잎부터 돌보자



경기도 내 문예회관이 스무 곳이 넘지만 고유한 예술 성향과 콘텐츠를 가진 곳은 손으로 꼽을 정도다. 십여 년 전부터 문화시설 건립 열풍이 불어 각 지자체마다 거대한 공연장을 세웠지만 막상 콘텐츠 확보에는 전문성이 떨어져 어디나 비슷비슷한 공연 현수막이 걸려 있다. 최근, 공연장의 콘텐츠를 강화하고 각자의 색깔을 지니자는 취지로 공연 단체를 2년간 공연장에 상주시키는 사업이 새로 시작되었다. 그 일환으로 며칠 전 공연 단체와 공연장이 서로를 소개하고 만나는 설명회가 열렸다.

사람들이 번잡스럽게 미팅을 하는 사이 한 무용가가 새침한 얼굴로 울상을 짓고 있었다. “대부분 극단이나 오케스트라만 원하지 무용단을 원하는 곳은 거의 없네요.” “현대무용이 그렇게 인기가 없나요? 좀 더 공격적으로 얘기해보세요.” 그녀는 해외무용단에서 활동하다가 몇 년 전 들어와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이였다. 사실 한국에서 일반 무용 관객은 거의 없는 셈이어서 그 고생길이 짐작이 갔다. 반면 공연장 측에서도 현대무용이 대중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으니 선뜻 현대무용을 선택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행사가 끝날 때쯤 한 공연장 기획자가 넉넉히 얘기한다. “사실 같이 일해보고 싶은 분야는 오케스트라보다는 무용이었어요. 내가 무용 때문에 공연 기획자가 됐거든요. 어느 날 무용을 한 편 봤는데, 춤동작이 너무 아름다워서 계속 공연장을 찾다가 결국 이 길로 들어선 거예요.” ‘중매’가 성사될 것 같다는 예감에 얼른 아까 만났던 무용가를 소개해주고 만나보라고 부추겼다.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시민들이 예술을 얼마나 보는지 알아보기 위해 몇 년마다 문화 향수 실태 조사라는 것을 한다. 그 조사

독일 뒤셀도르프의 탄츠하우스는 안양시만 한 도시에 구철도 역사를 리모델링해서 만든 '무용의 집'이다. 이곳에는 600석 규모의 공연장과 레지던시 공간, 간단하게 식사나 술을 할 수 있는 펍이 있다. 공연이 끝나면 사람들이 펍으로 몰려들어 탄츠하우스를 거쳐갔던 무용가의 이름이 새겨진 의자에 앉아 공연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에 따르면 성인 기준으로 연극은 2년에 한 편, 무용 공연은 30년에 한 편을 본다. 30년이라니! 거의 무의미한 수치다. 우리나라에서 무용은 거의 멸종 위기에 있는 예술이고 존재감이 미미한 장르다. 몇 년 전 방문한 독일 뒤셀도르프의 탄츠하우스 Tanz Haus는 안양시만 한 도시에 구철도 역사를 리모델링해서 만든 '무용의 집'이다. 현대무용부터 사교춤, 힙합까지 다양한 장르가 연중 내내 개설되고, 세계의 무용가들이 머무르며 작품 발표를 한다. 관객들은 밤 10시에 시작하는 공연을 보고 새벽까지 맥주를 마시며 애정 어린 비평을 한다. 공간이 중심이 되어 관객 개발, 예술 활동, 예술 교육, 커뮤니티 활동이 모두 생겨난 것이다. 이곳은 독일이 세계 현대 무용을 리드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피나 바우시가 탄츠테아터라는 새로운 무용으로 성공한 이후 무용은 연극, 서커스, 미디어, 음악의 언어를 흡수하면서 현대예술의 차세대 동력이 될 만큼 잠재성이 풍부한 장르가 되었다. 이런 곳이 우리나라에도 만들어질 수 있을까.

“내일 극장을 보여준다고 와보라네요.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까 봐요.” 무용으로 다져진 마르고 탄탄한 그녀의 몸이 기대감으로 들떠 있다. 그러나 공연장에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으니 무용가 상주를 결정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독일과 우리 사이의 간극을 잠시 떠올리며 실망보다는 파이팅을 외쳐본다. 한국은 예술 정책 역사가 짧아 아직 청년기에 불과하고 이제 그 동력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이다. 그녀가 원로가 되어 있을 즈음에는 저녁에 현대무용을 보러 가기 위해 걸음을 재촉하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

오세형 경기문화재단 문예지원팀

2010 G-GLOBAL AVIATION IN ANSAN 경기국제항공전

2010. 4. 30 (금) ~ 5. 5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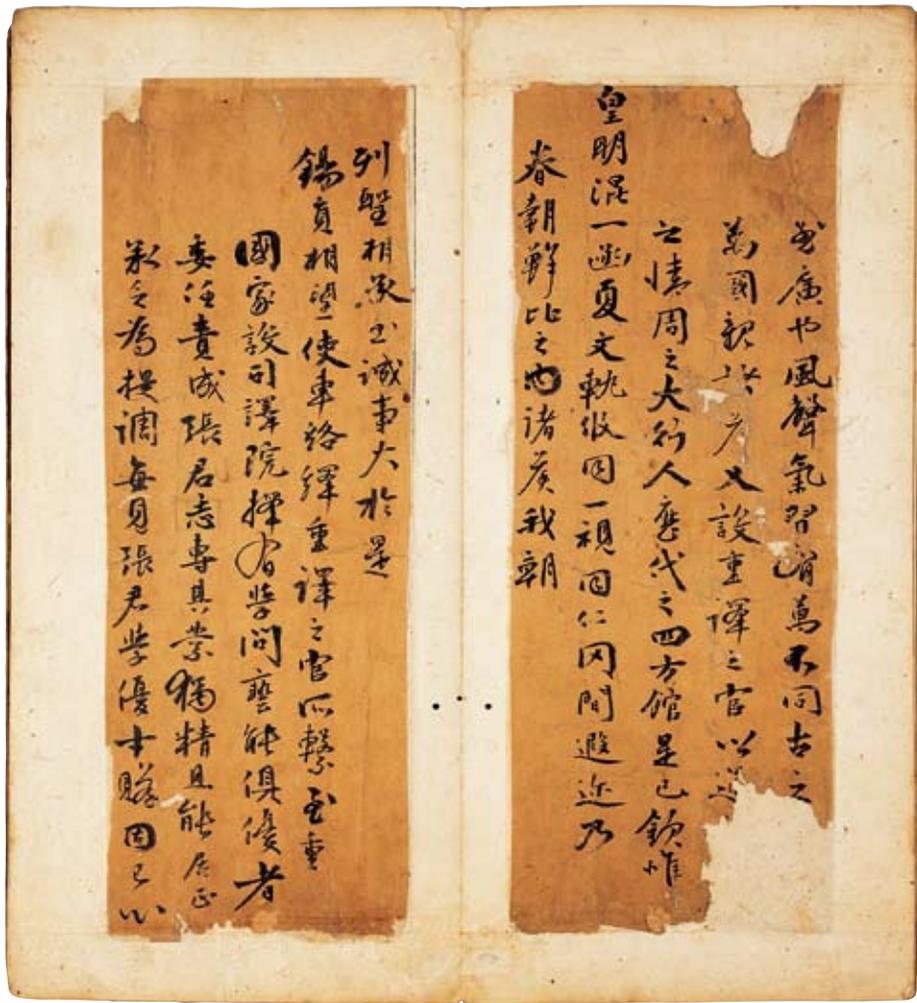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639 (한국해양연구원 앞)

창공에 그리는 꿈과 희망!

Drawing Dreams and Wishes in the Sky



- 입장료**
- 성인 : 만 18세 이상 ~ 만 64세 이하 **3천원**
 - 아동 · 청소년 : 만 5세 이상 ~ 만 18세 미만 **2천원**
 - 무료 : 만 5세 미만 영유아, 만 65세 이상



천사사한진적天使詞翰眞蹟 | 서거정徐居正 | 1476년 | 17.9x38.7 cm | 경기도박물관 소장 | 보물 제1622호

서거정(1420~1488)은 조선 초기의 문신이며 학자이다. 이 서첩의 원문은 <사가집四佳集> 권6 <증장원정서贈張院正序>에 실려 있으며, 김지남金指南이 사역원司譯院의 연역 등을 수록하여 펴낸 <통문관지通文館志>에도 기록되어 전해지는 귀중한 자료이다. 글씨는 1476년 정월 명나라 정사 기순祈順을 맞이했던 원정사遠接使 서거정의 것이다. 서첩에는 앞쪽에 기순의 시가 있고 뒤쪽에 서거정의 서가 있는데 서거정의 서 앞부분이 일부 탈락되었다. 특히 서거정의 글씨는 당시 유행했던 이왕二王의 글씨와 종요의 선시표宣示表적인 요소가 바탕이 된 듯한 행서가 전체적으로 조화미를 느끼게 한다.